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록

- 일 시 : 2016. 1. 26(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한태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문화재 등록	공개
2	「고종황제 하사 족자」 문화재 등록	공개
3	등록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 말소	공개
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	공개
5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 사업 추진계획	공개

【검토사항】

6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공개
7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 문화재 등록	공개
8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문화재 등록	공개
9	「사향가」 문화재 등록	공개
10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문화재 등록	공개
11	「의병장 곽한일 칼」 문화재 등록	공개
12	등록 제52호 「구 서울특별시청사」 문화재 등록 범위 조정	공개

【보고사항】

13	지하시설 등록문화재 위 지상 건축물 신축 등 현상변경 사례 및 관리방향	공개
14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추진계획	공개

심 의 사 항

1.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경기도 이천시 소재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43-1
 - 소유자 : 조태권
 - 수량 : 등요 1기, 길이 27m, 폭 2~2.3m
 - 건립시기 : 1949년 축조 (1962년 개조)
 - 구조 : 등요(登窯), 경사도 22~25°
- (3) 신청내용
 -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등록문화재 등록
- (4) 신청인 의견
 - 전통 도자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함
- (5) 등록예고 : '15.12.16. ~ '16.1.15.(30일간)
 - 예고내용 : 문화재 등록 예고
 - 예고대상 : 등요 1기 (길이 27m, 폭 2~2.3m)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5.10.29) / 관계전문가 ○○○, ○○○, ○○○〉

- 현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작 가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특히, 한국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 전통 가마 형식을 따른 등요가 거의 사라져, 지자체에 근현대 시기 등요에 관한 기초자료 접수(15.5.7~7월) 결과 개항 이후 제작된 것으로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6건(경기 1, 경북 1, 충북 1, 전남 1, 제주 2)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천 수광리 가마는 한국 현대 도예의 초기상을 반영한 중요한 자료로서 희귀성 측면까지 감안할 때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가마는 1949년 당시 만들어진 칠기 가마를 1962년에 현재의 연실등요로 개축한 현대의 가마로서 12칸이 이어져 있는 가마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명칭을 “이천 수광리 연실 등요” 또는 “이천 수광리 칸가마”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가마 명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정토록 함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구) 이천 수광리 근대 가마

2. 용 도 : (현) 생산시설 (원) 생산시설

3.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43-1

4. 소유자 : ○○○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칸가마(계단식 연실등요, 12칸, 진흙 및 벽돌구조)
- 제작년도 : 1962년(1949년 축조한 칠기가마를 개조)
- 수량 및 면적 : 1기, 길이 27m×너비 2~3m
- 층수(높이) : 1층, 경사도 22°

6. 조사자 의견(2015.10.29)

<○○○ 전 문화재위원>

- 광주요의 등요는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장작가마로서, 1949(1950)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광주요의 등요는 20세기 중반기에 설치된 전국의 가마들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봉통을 제외하고 12봉(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길이 27m, 넓이 2~2.3m, 경사도 22~25°이며, 보존상태는 매년 회사 자체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 광주요의 등요는 이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의 현대 전통 도자기 제작의 중심지로서, 대부분 가스가마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전통의 장작가마로서 잘 남아 있어 경기도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본 등요가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이천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자명품지역으로 세계 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곳임. 특히 경기도는 광주 분원백자 도요지 등 도자문화가 번성하였던 지역이지만, 근대 이후 가스가마의 보급으로 전통 장작가마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임. 이런 측면에서 광주요 등요는 1960년대 축조되어 약 30-40년 이상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그러므로 광주요 등요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계단식으로 형성된 12칸 가마로 등요의 전형적인 가마 양식을 지니고 있음. 전체

길이가 27m이며 폭은 160-300cm, 내부높이는 80-110cm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가마 폭이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짐.

축조재료는 흙벽돌과 진흙을 사용하였고, 칸 사이 불창은 내화벽돌로 쌓았음.

앞의 칸들은 천장재료로 흙벽돌을, 6번 칸부터는 내화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처음 축조한 이후에 어느 시기에 보수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광주요 자료에 따르면 1949년(혹은 1953년) 故홍재표 옹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초기에는 칠기소성을 하였다고 함. 1963년 故조소수 선생이 광주요 부지를 구입한 이후부터 현재의 등요가마로 새로 축조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함.

그동안 광주요 등요의 보존관리는 매우 양호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며, 외벽의 갈라짐을 보수하는 일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가마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본 등요는 광주요에서 보존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요가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이천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자명품지역으로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리고, 해마다 매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임.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고려한다면, 도자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부합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실현가능함.

다. 기타사항-광주요 등요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도자기 소성행사 등이 가능하기를 바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현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등요가 없는 관계로, 본 광주요 등요는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본 광주요 등요는 도자기 소성을 할 수 있는 원형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특히 이천의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므로 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신청자료의 등요가마 사진에는 1960년대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년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특히 정확한 축조년대)가 누락되어 있음. 광주요 관계자들의 간접자료라도 보완하기를 바람.

<○○○ (한국도자사)>

1) 개요

- 상기 장작가마는 1949년 초축된 칠기(흑유)가마를 1962년 개축한 12칸의 계단식 연실등요(連室登窯, 칸가마)로서,
- 한국전쟁 이후 서울에 모여 작업을 재개한 전통(전승)도예가들이 1950년대 말부터 작업 여건이 좋은 이천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면서 처음 개축한 자기가마이다.¹⁾
- 비록 가마구조는 일제강점기 도입된 근대식이지만, 이후 이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현대 전통(전승)도예의 초기상을 잘 반영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사결과 가마는 약 22°의 급경사지에 계단식으로 바닥을 깔 다음 벽체 및 천정을 벽돌(봉통부는 망생이)로 축조 하였으며 외부는 점토를 발라 마감하였다. 길이가 약 27m로 길고 칸수가 12칸으로 많은 것이 특징인데 내벽 폭이 1번 칸은 1.65m, 12번 칸은 3m로 뒤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이다. 아궁이에서 굴뚝을 바라보아 오른쪽으로 각 칸마다 출입구 1개, 불보기창이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출입문 쪽 바깥은 편평하게 시멘트로 단을 만들어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며 가마 외부에는 철골구조의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다.
- 본래 조선시대까지 전통가마는 점토를 이용하여 지붕을 쌓고 바닥을 경사지게 만든 연실등요가 유행하였으나 1900년을 전후하여 벽체에 벽돌이나 망생이를 사용한 가마들이 나타나는데²⁾ 특히, 벽돌로 계단식 바닥을 깔 다음 상부를 벽돌로 축조한 가마가 일제강점기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일본 아리타와 미노지역의 가마양식이 유입된 것이다.
- 현재 이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축조·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장작가마는 벽돌 또는 망생이를 사용한 계단식 연실등요(칸가마)로 점차 한국화되고 지역여건이나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연실등요는 1980년대 가스가마가 보급되고 장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신축하는 가마도 5칸 내외로 소형화되는 추세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이 장작가마는 1949년 故홍재표가 지은 칠기가마를 1959년 故조소수가 매입하여

1) 서울 성북동 한국조형문화연구소(1955~1962)와 대방동 한국미술품연구소(1956~1958)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도예가들은 자기가마와 구조가 같은 칠기가마(4개)를 빌어쓰기 위해 경기도 이천으로 모여들었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도예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천에는 현재 300여개의 요장이 활동하고 있다.

2) 벽돌가마로는 1902년 축조된 충주 미륵리 4호 유적이 있으며, 망생이 가마로는 장흥 월송리, 문경 관음리 가마 등이 있다. 한편, 지규식의 『하재일기』에는 1903년 분원에 망댕이(망생이)가마를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故지순택, 윤덕중, 박수만, 김재호, 박부원, 서광수, 이은구, 김낙수 등 장인들과 공동사용하다가 1962년 칠기가마를 헐고 지금의 구조와 형태로 신축한 것이다. 이후 1963년 광주요를 설립·운영하면서 여러차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이 가마의 6번~12칸의 벽체와 천정은 벽돌을 보강하면서 내화벽돌로 교체하였으며 가마 외벽 대부분의 점토를 새로 덧발라 보강한 흔적이 있다.

또한 가마 외부에는 계단식 작업공간을 조성하면서 장작을 쌓고 불을 때기 쉽도록 바닥을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보호각은 1987년 목조에서 철골조로 교체하였다.

- 도자기 가마는 소성할 때 1,200℃ 이상의 고온과 고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피로도 가 매우 높다. 따라서 수시로 내·외벽을 덧바르거나 부분적으로 벽돌을 드러내고 다시 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가마는 비록 구조보강을 위한 개보수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마의 구조와 외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 장작가마는 3번국도를 따라 서울에서 이천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 광주요 요장내 뒤편 사면에 있다. 이 마을(신둔면 수광리)은 이천의 초기 요장들이 정착한 곳으로 인근에 고려도요(지순택요), 해강고려청자연구소 등을 비롯한 다수의 요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 이 장작가마는 광주요 내의 성형·조각·시유·번조 등 일련의 공방과 연계된 요업시설의 일부로서 현재까지도 1년에 1~2회 번조작업을 하며 장인들에 의해 보수 및 관리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장작가마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고 그 결함이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통 번조방식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활용계획에서 제시한 지속적(연 1~2회)인 번조작업과 더불어 도예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전통가마 소성체험·교육,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견학 등의 활동을 통해 보존관리는 물론 합리적 활용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값비싼 연료비와 설치비, 유지관리비로 인해 전통 장작가마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작가마를 이용한 전통도예 기법의 계승과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가마는 광주요 요장내 요업시설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장인들에 의해 사용 및 유지·관리되어 왔으며, 입지와 접근성,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한다면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번조작업을 지속하고 계획과 같이 견학 및 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도자기 가마로서 기 등록된 문화재로는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등록문화재 제403호)가 있으나 부거리 옹기가마는 단실등요(單室登窯, 대포가마)로서 상기 장작가마(連室登窯, 칸가마)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도자사적으로도 요업기술의 계통이 다른 시설물이다.
- 상기의 장작가마는 백자·청자·분청 등을 번조하는데 사용하는 자기가마로서 비록 근대기 외래기술이 접목된 양식이긴 하지만, 60년대 이후 이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신축·개축된 현대식 전통 장작가마의 초기양식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작가마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³⁾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장작가마의 운영수요가 줄면서 기존 가마들이 방치·폐요됨에 따라 역사성을 지닌 장작가마는 현재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가운데 상기 장작가마는 근대식(일본식) 축요기술이 도입되어 한국화된 현대 장작가마의 초기양식으로서 12칸에 이르는 규모와 구조가 특징적이다.
- 현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작가마중 가장 이른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특히, 한국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근·현대 전통도자의 역사를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상기 장작가마를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제안 : 이천 수광리 근대 칸가마(계단식 연실등요)

3) 자기가마로서는 19세기 전반 축조된 문경 관음리 가마(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35호)가 있으나 1960년대 개축하면서 가마 바닥이 경사식에서 계단식으로 바뀌는 등 근대식으로 구조가 바뀐 것이다. 이천지역에서는 고려도요의 장작가마가 60년대 후반에 축조되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고종황제 하사 족자」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고종황제 하사 족자」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5.11.24)를 거쳐 등록예고('15.12.8~'16.1.6)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형식	소유자	소재지	비고
고종황제 하사 족자	1점	세로170× 가로34.4cm	19세기 말	종이	필사/ 족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3)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5.12.8~'16.1.6(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

- ○ ○ ○ 위원
 -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환수(기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위원

- 필치는 물론 종이나 장황의 격도로 보아서 당시의 시대성이 드러나며 안작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에비슨의 계보인 앤더슨(A.G, Anderson)의 후손이 기증하였다는 소종래(所從來)가 확실한 고종의 하사품이라는 근거가 믿을 만 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 ○ ○ 위원

-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과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중원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남겨진 족자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와 친분이 있는 A. G. Anderson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검토의견

- 시대성과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고종황제 하사 족자」 조사보고서 1부.

「고종황제 하사 족자」 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종황제 하사 족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배접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요망됨.

2) 내용 및 특징

- 조선(대한제국)정부가 19세기 말기에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이다. 에비슨은 1893년 8월말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되었고, 이후 10년간 왕실의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인이다.
- 이 족자가 하사된 시기에 대해서는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도 참고가 된다. 곧 여러 문헌에 보이는 에비슨의 한자명은 宜丕信(의비신), 魚飛信(어비신), 魚丕信(어비신) 등이다. 이 중에서 宜丕信(의비신)은 이 족자 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입국 초기의 한자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1906년에 에비슨은 훈4등과 태극장을 하사받게 되는데 이때의 한자명은 魚飛信(어비신)이다. 곧 『고종황제실록』의 고종 43년(1906) 4월 28일(『일성록』에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이 있음)조에 “(언더우드와 함께) 영국 의사 어비신은 여러 번 수술을 한 성과가 있으니 특별히 모두 훈4등을 주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英國醫師(영국의사), 魚飛信(어비신), 屢有試術之效(루유시술지효), 並特敍勳四等(병특서훈사등), 各賜太極章(각사태극장))”는 기사⁴⁾가 있는데 이 한자명은 이때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모든 기록에 魚丕信(어비신)이라는 한자명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족자는 에비슨이 왕실의 주치의로 재임하던 시기와 한자명 표기 등을 보아 1893년 입국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에게 하사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오른쪽에 “宜丕信 大人 閣下(의비신 대인 각하)”라는 수급자 표시에 이어 족자 가운데 쓴 글(詞語(사어))은 “投良濟堯帝時巫咸(투양제요제시무함)”이다. 풀이하자면 “좋은 약을 지어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이다. 무함이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이며, 황제는 이 사람을 공경하여 신무(神巫)라하고 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수급자의 오른쪽과 가운데 쓴 글의 위쪽에 각각 “의비신 대인 각하” “투량데요제시무함”과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병기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4) 의정부관보 제3447호. 1. 宮廷錄事, “詔曰…英國醫師, 魚飛信, 屢有試術之效, 并特敍勳四等, 各賜太極章.” 2. 敍任及辭令, “英國醫師, 魚飛信, 敍勳四等, 賜太極章. 四月二十八日.”

리고 족자의 아래 부분에도 가운데 쓴 글에 대해 작은 글자로 한글 풀이를 적어 놓았다. 곧 “도흔 약을」 가지고 잘 쓰는」 법은」 팔천삼백팔십」 여년전에」 요라는 황데째에」 텃하에 데일」 되는 무함이라」 는 의원과 궂도다”라는 이 글의 국역문이 9행에 걸쳐 작은 글씨로 필사되어 있는 것이다. 국역문은 아마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는 태극문양, 외부에는 괘와 글씨가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져 있다.

- 뒷면 상단에는 펜으로 앞면의 내용을 영어로 써 놓았다. “Korean Inscription in commendation of the Doctor」 (박사에게 상으로 주고자 쓴 한글)”라는 제목 다음 행에 “As for his skill in the use of medicine」 it is equal to that of Mooham who」 was the first in all the universe」 in the days of the The Emperor Yo, 8480 add years ago.”라고 펜으로 필사해 놓았다. 영문내용은 가운데 쓴 8자의 해석이자 국역문의 영역이다. 국역문과 다른 점은 “팔천삼백팔십 (8380)”을 “8480”으로 적어 놓은 점이다. 이 글의 왼쪽에 “□□□from [Oliver] Avison”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비슨이 누군가에게 주거나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 종이는 8자를 쓸 수 있게끔 미리 8개의 동그란 문양이 있는 연황색의 중국제품이며, 네 테두리도 이와 유사한 문양이 있다. 글씨는 송연묵으로 썼으며, 윤기가 남아 있다. 축의 재료는 참죽나무로 추정된다. 소장자 측에서는 고종의 친필로 전해진다고 하나 이 작품에는 고종이 직접 썼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굵은 방형의 서체, 「珠淵(주연)」이라는 고종의 호가 적힌 일반적인 친필과 대비해 볼 때 친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이 족자는 재료가 전통 한지가 아닌 점도 아쉽다.
- 그러나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 의료인을 중국 상고시대 황제 때의 무함에 비유함으로써 서양 의학의 탁월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또 이 족자는 에비슨의 손녀인 헬렌 에비슨 여사가 소장해 오다 1996년 10월 17일 연세의료원 안이비인후과병원 봉헌식에서 Paul H. Anderson박사를 통해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Paul H. Anderson박사는 안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최초의 외국인 의사로 1931년에 세브란스병원 안과에 부임하였던 Earl. W. Anderson(재임1931~1941) 교수의 아들이다.
- 이렇게 이 족자는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학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환수(수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문헌자료

- 심규한·박윤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015)
- 이만열, “제중원과 에비슨”(『제중원 개원 1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15. 4. 10)
- 연세대학교 의료원
안이비인후과병원(http://www.yuhs.or.kr/affiliated_org/hospital/severance/eye_ent/)

- 『고종황제실록』
- 『일성록』

4) 종합의견

-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환수(기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

1) 현상

-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특수 문양지에 세로로 쓴 글씨를 표구한 족자.
- 보관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단, 종이와 배접지와 물성이 걸맞지 않음으로써 지면에 가로로 갈라짐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 있다. 장황상태에서 옛 모습은 접할 수 있으나 뒷부분에 영어로 번역문을 쓴 펜글씨의 흔적이 있고 특히 밑부분에 훼손이 심하여 보존수리가 요구된다.

2) 내용 및 특징

- 이 족자는 고종황제가 예비슨이란 당시 시의(侍醫)에게 하사한 글씨로 전해져 온 것이다. 그 동안 소장자들이 고종의 친필로 여겨온 바 있으나 믿을 수 없다. 우선, 필치에서 고종의 글씨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인 “投良劑堯帝時巫咸(투량제요제시무함)” 여덟 글자의 윗부분과 오른쪽 상단에 쓴 협서 “宜丕信 大人 閣下(의비신 대인 각하)” 일곱자의 오른쪽에 우리글로 독음을 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황제글씨의 품위에 전혀 걸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 서명과 낙관이 없는 것에 있어서 고종이 남긴 여럿 육필을 근거로 볼 때 주연(珠淵)이란 침명(簽名)외에 낙인(落印)하고 있는 대체적인 여타 글씨들과 전혀 다른 체제를 보이고 있다.
- 이 밖에도 밑 부분에 한글로 본문에 대한 번역을 “도는 약을 가지고 잘 쓰는 법은 팔천 삼백 팔십여년전에 요라는 황데때에 던하에 데일되는 무함이라는 의원과 갓도다.” 라고 쓰고 먹으로 원형의 도장을 찍었다가 지운 흔적이 보인다. 이 필치는 위의 독음을 단 필치와 같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추론컨대 거의 비슷한 시기 한국최초의 중등사학<培材學堂>현판을 정학교에게 쓰게 하여 하사하였던 예와 같이 누구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와 동일한 방법을 택하였던 사례로 판단된다. 필치는 물론 종이나 장황의 격도로 보아서 당시의 시대성이 드러나며 안작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예비슨의 계보인 앤더슨(A.G, Anelerson)의 후손이 기증하였다는 소종래(所從來)가 확실한 고종의 하사품이라는 근거가 믿을 만 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3)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

<○○○ 위원>

1) 현황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로 알려진 이 문서는 가로 344mm 세로 1700mm의 족자이다. 본래 Oliver R Avison 박사의 4남인 Douglas Bray의 딸인 Helen Dell 여사에 의해 소장되었으나, 지난 1996년 10월 17일 연세의료원 안이비인후과병원 봉헌식에서 일제강점기 안이비인후과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던 Earl H. Anderson 박사의 아들인 Paul H. Anderson 박사가 연세대에 기증하였다.
- 족자는 상축과 하축이 남아 있으며, 상축에 끈은 있으나 꽃이는 멸실된 상태이다. 제침은 없으며 그 자리에 본문인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번역한 영문을 펜으로 기록하였다.
-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하고, 구겨짐과 들뜸 현상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오염물의 클리닝과 물성분석을 통한 배접 등 기본적인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2) 내용 및 특징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문양지에 해서체로 쓴 글씨이다. 화본(畫本)의 중앙에는 세로 방향으로 원문(圓紋) 8개를 배치하고, 각 원문 안에 문양을 그려 넣은 후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이라는 한자(漢字) 여덟자를 각각 적어 넣었다. 또한 각 한자 위에는 그 독음(讀音)을 한글로 써넣었다. 또한 상하좌우 사방의 가장자리에는 얇은 먹을 사용하여 쌍변으로 문양대(紋樣帶)를 그려 넣은 후 그 안쪽에 문양을 배치하였다. 문양은 간결하여 운문과 당초문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 화본 중앙의 여덟자를 기준으로 왼쪽(향우)에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의비신 대인합하(宜丕信大人閣下)’라 하여 족자를 받는 사람을 밝히고 있다. 역시 각 글자의 왼편에 한글로 한자의 독음을 달아 놓았다. 이를 통하여 족자를 받은 인물이 Oliver R Aviso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Oliver R Avison(1860~1956)은 고종의 시의(侍醫)로서 제중원 원장과 세브란스 원장을 비롯하여 제중원의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국 이름은 ‘의비신(宜丕信)’ 혹은 ‘어비신(魚丕信)’이라 부르고 있다.
- 그는 1860년 6월 30일 영국 Yorkshire의 Jagger Green에서 태어났다. 1877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본래 관심있었던 화학분야를 살리기 위해 1880년 스미스폴스의 약국 점원으로 3년여 일하면서 1884년 6월 온타리오 약학교를 졸업하여 약사가 되었고, 이후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여 1887년 6월 졸업하면서 의사가 되었다. 에비슨은 졸업 직후 교수로 임명되어 약리학과 치료학을 강의하면서 동시에 토론토 시내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 Oliver R Avison은 1893년 2월 6일 선교사로 임명되어 7월 우리나라에 왔고, 11월 1일 제중원(濟衆院)의 책임을 맡았다. 제중원은 1885년 4월 10일 고종의 후원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병원 설립은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Horace N. Allen이 갑신정변 당시 자상(刺傷)을 입었던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중원의 운영은 조선 정부가 건물, 운영비, 병원 업무 보조 등의 모든 일을 책임맡고, 미국 북장로회가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일부

운영을 책임지는 합작 병원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알렌(Horace N. Allen) 이후 헤론(John W. Heron), 엘러스(Annie J. Ellers) 그리고 빈튼(Charles C. Vinton) 등의 의료선교사들이 의료 활동을 펼치면서 서양 의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Oliver R Avison이 제중원을 책임지면서 이룬 업적은 몇 가지가 있다.
- 첫째는, 제중원의 선교부 이관이다. 조선 정부와 북장로회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제중원은 당시 재정 압박과 운영 부실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이에 에비슨은 조선 정부에 제중원을 선교회에 넘기도록 요청하였고, 반년 여의 협상 끝에 1894년 9월 26일 제중원의 운영권이 미국 선교부에 넘어갔다.
- 둘째는, 제중원에서 의학 교육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본래 제중원은 1886년 3월 29일 16명의 학생으로 제중원의학교를 시작하였으나 계속되지 못했다. 이에 에비슨은 1895년 10월 제중원에서 의학 교육을 재개하였다. 동시에 거의 전과목의 의학책을 우리말로 번역 출판하였다.
- 셋째는,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다. 에비슨은 1900년 4월 3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해외 선교회의에서 ‘의료 선교에 있어서의 우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며 여러 선교부가 연합해 운영하는 현대식 병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강연을 들은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로부터 1만달러를 기증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에비슨은 1902년 6월 남대문밖 북송아골의 땅 9에이커를 구입하여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정초식(定礎式)을 열었고, 1904년 9월 23일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하였다.
- 한편 족자의 하단에는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국역한 내용을 적어 넣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흔 약을」 가지고 잘쓰난」 범은」
 팔천삼백팔십」 여년전에」 요라는 황때때에」
 턴하에 데일」 되는 무함이라」 는 의원과 갓도다

-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태극(太極)’과 ‘건곤감리(乾坤坎離)’의 四卦가 함께 그려진 태극인(太極印)을 찍었다.
- 한편 표지(表紙)에는 제침이 없다 다만, 그 자리에 본문인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번역한 영문을 펜으로 기록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 for his skill in the rise of Medicine it is equal to that of Mooham who was the first in all The Universe in the days of the The Emperor Yo, 8480 old years ago."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고종의 친필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족자에서 글쓴이의 署名과 落款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고종이 남긴 다른 친필본에서 확인되는 ‘珠淵’이라는 簽名과 落款 등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조금더 고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그러나 본 족자는 한국의 초기 의료와 고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Oliver R Avison 박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라는 사실과 함께 본문을 한자로 쓴 다음 그 독음을 한글로 적어 넣고 그 하단에는 그 뜻을 국역하여 기록하였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의 후손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도 큰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은 조금더 고증이 필요한만큼 등록문화재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고종의 시의(侍醫)로서 제중원 원장과 세브란스 원장을 비롯하여 제중원의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Avison. Oliver R 박사가 고종으로부터 받은 족자라 전한다. 고종의 친필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 다만,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과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중원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남겨진 족자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와 친분이 있는 A. G. Anderson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은 조금더 고증이 필요한만큼 등록문화재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 기타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향후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유물이다. 따라서 ‘고종’과 ‘하사’ 라는 용어는 사용하기 어렵다.
- 다만 에비슨가에 소장되었던 사실은 분명한만큼 수증자인 Avison. Oliver R 박사 그리고 족자의 내용인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근거할 때, <Dr. Avison. Oliver. R. 家 所藏 ‘投良劑堯帝時巫咸’ 해서체 족자> 정도의 명칭도 한 사례가 될 것이다.

5) 종합의견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고종의 시의(侍醫)로서 제중원 원장과 세브란스 원장을 비롯하여 제중원의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Avison.

Oliver R 박사가 고종으로부터 받은 족자라 전한다. 고종의 친필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 다만,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과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중원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남겨진 족자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와 친분이 있는 A. G. Anderson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은 조금 더 고증이 필요한 만큼 등록문화재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 말소

가. 제안사항

- 전북 익산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에 대한 등록 말소와 관련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5년부터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등록 말소를 희망함에 따라 등록 말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문화재 제180호, '05.6.18등록)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2-253(중앙동3가 114-2)
 - 등록구조/규모 : 조적조 / 1동 2층, 289.26㎡
- (3) 신청내용 :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등록 말소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1.1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건립 당시의 외관과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익산 원도심의 근대사적 유구로서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단, 주변 대지의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에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며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조적벽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트러스와 장선도 일부 부식이 우려되나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의 편의를 위해 1층부를 필로티로 하는 것은 일부 구조보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마. 기타의견

<익산시>

- 해당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정(2005.6.18등록) 당시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사안으로 현재는 관련 시설들의 노후로 인한 공가 상태이며, 주변(익산 구도심)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구 삼산의원 주변은 평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진 계획되어 있어, 지가상승 및 개발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산의원 소유자 역시 연계 부지까지 요양병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정 절차상의 소유자 확인 여부 등 논란이 있지만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개발)이 병행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검토 건의

바.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 출석 6명, 보류 6명

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제443호 「구 도립 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의 현상변경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도립 대구병원」 주변 경북대학교 응급병동 위에 헬리패드 등을 시설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경북대학교 총장

(2) 대상 문화재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제442호, '03.01.28 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91

- 구 도립대구병원 (사적 제443호, '03.01.28 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구 도립대구병원에서 약20m 이격)

※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1구역(심의구역)'임 - 허용용도 : 대학교, 종합병원

- 헬리패드 및 부속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신설

- 헬리패드(철골구조) : 시설면적 739.84㎡ (72.2m×72.2m), 시설높이 10m

-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 : 시설면적 32.27㎡, 시설높이 10m

(4) 신청인 의견

- 대구·경북 권역의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이송 및 진료로 사망률을 낮추고자 시행된 외상센터(복지부 지원사업) 사업에 선정되고 후속적으로 이에 대한 필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시설이 미비 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소지가 있음

- 지방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 및 사망률 저감을 위한 지역 염원 사업임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16.1.19) / 전 문화재위원 ○○○〉

-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계획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조정·마련하여 위원회에서 재검토토록 함

- 출석 6명, 보류 6명

5. 2016년도 근대문화재 보수정비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가. 제안사항

- 2016년도 근대문화재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적(근대건축·시설물) 및 등록문화재]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년도 국가지정문화재(근대사적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 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음
 - 1차 평가위원회 : '15. 8.19 / ○○○,○○○,○○○ 위원, 청 관계자
 - 2차 평가위원회 : '15.12.10 / ○○○,○○○,○○○ 위원, 청 관계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년1월 ~ 사업종료 시 까지
- 사업대상 : 99건 15,028백만원 (국비8,498백만원, 지방비6,530백만원)
 - 근 대 사 적 : 17건, 4,920백만원 (국비3,444백만원, 지방비1,476백만원)
 - 등록문화재 : 82건, 10,108백만원 (국비5,054백만원, 지방비5,054백만원)

(3)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작성, 사업시행, 사업감독 등
 - ※ 사업 시행 중 중요사안은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사업 시행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 예산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두차례의 사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적정한 사업내용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201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적·근대건축·시설물, 등록문화재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최종)		
					국비	지방비	계
서울	강북구	등록 514호	서울 이준 묘소	묘역 정비	62,500	62,500	125,000
서울	강북구	등록 516호	서울 이시영 묘소	묘역 정비	21,780	21,780	43,560
서울	강북구	등록 518호	서울 김창숙 묘소	묘역 정비	31,350	31,350	62,700
서울	노원구	등록 300호	서울 구 화랑대역	역사 일곽 정비	150,000	150,000	30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105,000	45,000	15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보수	122,220	52,380	174,600
서울	성북구	등록 134호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	구조안전진단, 지붕 보수	28,490	28,490	56,980
서울	성북구	사적 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건물 보수	619,460	265,483	884,943
서울	용산구	사적 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창호및출입문보수	63,000	27,000	90,000
서울	용산구	사적 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건물 내외부 보수	46,970	20,130	67,100
서울	종로구	등록 89호	서울 평창동 박종화 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	42,500	42,500	85,000
서울	종로구	등록 90호	서울 홍파동 홍난파 가옥	창호 보수	5,000	5,000	10,000
서울	종로구	등록 230호	서울 혜화동성당	성당 보수보강	100,000	100,000	200,000
서울	종로구	등록 2호	서울 구 경기고등학교	지붕보수	50,000	50,000	10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호	안국동윤보선가	안채 가칠 등 보수	70,000	30,000	10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97호	서울 이화장	조각당, 수족사 및 담장 보수	252,000	108,000	36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97호	서울 이화장	담장보수	257,600	110,400	368,000
서울	중구	사적 256호	서울 정동교회	창호 및 지붕 보수	68,600	29,400	98,000
서울	중구	사적 258호	서울 명동성당	안전점검 및 상시계측 시스템	245,000	105,000	350,000
서울	중구	사적 157호	환구단	환구단 보수 및 주변정비	700,000	300,000	1,000,000
서울		등록 412호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가옥 내부 보수	6,000	6,000	12,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최종)		
					국비	지방비	계
서울		등록 413호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가옥 내부 보수	26,000	26,000	52,000
부산	동구	등록 330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석축 및 수목 정비	87,800	87,800	175,600
부산	동구	등록 647호	부산 구 백제병원	정밀안전진단	35,000	35,000	70,000
대구	동구	등록 4호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	정밀안전진단	6,000	6,000	12,000
대구	동구	등록 628호	대구 동화사 괘불도	보존처리(천간연결부위, 박락부분수리,천간지간 교체)	70,000	70,000	140,000
대구	중구	사적 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성당 외부 배수로 설치, 설계비, 주변정비	70,000	30,000	100,000
대구	중구	사적 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 교 본관	건물 내외부 도장	10,000	4,286	14,286
대구	중구	사적 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건물 벽체 보수	70,000	30,000	100,000
인천	남구	등록 247호	대한민국 수준원점 (水準原點)	지붕 보수 및 내부 도색	15,000	15,000	30,000
인천	중구	등록 248호	구 일본우선(郵船)주 식회사 인천지점	벽체 보수	15,900	15,900	31,800
인천	중구	등록 567호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안내판 설치	1,500	1,500	3,000
인천	중구	등록 569호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안내판 설치	1,500	1,500	3,000
광주	동구	등록 590호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관	안내판 설치	1,187	1,187	2,374
광주	동구	등록 590호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관	안내판 설치	1,500	1,500	3,000
광주	동구	등록 94호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종합정비계획 수립	33,250	33,250	66,500
광주		등록 158호	광주 구 수피아여 학교 수피아홀	창호 보수, 외벽 보수, 전선 정비	130,000	130,000	260,000
광주		등록 370호	광주 구 수피아여 학교 윈스브로우 홀	건물 내부 보수	150,000	150,000	300,000
대전		등록 101호	대전 충청남도청 구 관사 1·2·5·6호와 부속창고	관사 보수	250,000	250,000	500,000
경기	남양주시	등록 593호	남양주 고안수위 관측소	안내판 설치	1,420	1,420	2,840
경기	부천시	등록 537호	토끼와 원숭이	저작권사용료 연구비(번역비) 제작비	4,770	4,770	9,540
경기	부천시	등록 539호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저작권사용료 연구비(번역비) 제작비	13,000	13,000	26,000
경기	부천시	등록 605호	만화 코주부 삼국지	저작권사용료 연구비(번역비) 제작비	11,000	11,000	22,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최종)		
					국비	지방비	계
경기	파주시	등록 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야외전시장 관람편의 및 안내시설정비 증기기관차 정밀상태 조사 및 보존처리	100,000	100,000	200,000
강원	강릉시	등록 457호	강릉 임당동성당	성가대 및 균열부 보수	130,000	130,000	260,000
강원	원주시	등록 140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	마루 보수	75,000	75,000	150,000
강원	춘천시	등록 54호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벽체 보수	125,000	125,000	250,000
강원	화천군	등록 110호	화천 꺼먹다리	교량 상판 보수	10,000	10,000	20,000
강원	횡성군	등록 371호	횡성성당	배수로 정비	33,000	33,000	66,000
충북	진천군	등록 58호	진천 덕산양조장	벽체 보수	61,750	61,750	123,500
충남	공주시	등록 233호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가옥 내부 보수	15,750	15,750	31,500
충남	논산시	등록 48호	논산 연산역 급수탑	줄눈 보수, 외벽 세척	10,000	10,000	20,000
충남	논산시	등록 60호	강경 중양초등 학교 강당	지붕 누수부 보수	75,000	75,000	150,000
전북	논산시	등록 650호	강경성당	내부 바닥보수, 창호교 체, 계단보수	83,000	83,000	166,000
충남	부여군	등록 364호	부여 구 홍산 저포조합 본점	누수부 보수	15,000	15,000	30,000
전북	군산시	등록 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물 보수	400,000	400,000	800,000
전북	김제시	등록 61호	김제 죽산면 구 일본인 농장 사무소	배수로 정비	10,000	10,000	20,000
전북	부안군	등록 177호	구 부안금융조합	건물 보수	250,000	250,000	500,000
전북	완주군	등록 579호	구 만경강 철교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보수보강	217,000	217,000	434,000
전북	완주군	등록 579호	구 만경강 철교	안내판 설치	1,500	1,500	3,000
전북	완주군	등록 580호	완주 구 삼례 양곡창고	안내판 설치	5,000	5,000	10,000
전북	익산시	등록 263호	익산 함라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25,000	25,000	50,000
전북	익산시	사적 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본당 보수 및 주변정비	624,000	267,429	891,429
전북	임실군	등록 596호	임실 운암망루	안내판 설치 및 관람환 경 조성	35,000	35,000	70,000
전북	정읍시	등록 213호	정읍 진산동 영모재	협문 보수	4,050	4,050	8,100
전북	정읍시	등록 214호	정읍 관청리 근대 한옥	담장 및 안내판 보수	22,500	22,500	45,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최종)		
					국비	지방비	계
전북	정읍시	등록 276호	정읍 나옹군 생가와 사당	문간채 보수	25,000	25,000	50,000
전남	강진군	등록 264호	강진 한골목 옛 담장	담장 보수	45,000	45,000	90,000
전남	고흥군	등록 75호	고흥 구 소록도 갯생원 원장 관사	건물 외벽 보수	20,000	20,000	40,000
전남	곡성군	등록 122호	구 곡성역사	창고 보수	12,500	12,500	25,000
전남	담양군	등록 265호	담양 삼지천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22,500	22,500	45,000
전남	목포시	등록 114호	목포 양동교회	지붕 보수	100,000	100,000	200,000
전남	목포시	등록 30호	구 목포공립심상소 학교	건물 보수	90,000	90,000	180,000
전남	목포시	등록 30호	구 목포공립심상소 학교	강당 보수보강	148,500	148,500	297,000
전남	목포시	등록 43호	목포 구 청년회관	창호 및 외벽 보수	10,000	10,000	20,000
전남	목포시	등록 640호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지붕 누수부 및 선흡통 보수, 배수로 설치 등	75,000	75,000	150,000
전남	목포시	사적 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누수부 보수	105,000	45,000	150,000
전남	여수시	등록 115호	여수 장천교회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남	여수시	등록 32호	여수 구 애양원교회	복원 설계	22,500	22,500	45,000
전남	여수시	등록 33호	여수 애양병원	건물 보수	250,000	250,000	500,000
전남	영암군	등록 368호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전남	함평군	등록 117호	구 함평성당	창호 및 계단 보수	60,000	60,000	120,000
전남	함평군	등록 118호	함평 월호리 일본식 가옥과 창고	창고 기둥 보수	9,000	9,000	18,000
경북	문경시	등록 304호	문경 구 가은역	내부 보수	23,750	23,750	47,500
경북	문경시	등록 326호	문경 구 불정역사	내부 보수	23,750	23,750	47,500
경남	고성군	등록 258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경남	산청군	등록 260호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32,329	32,329	64,658
경남	산청군	등록 281호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18,153	18,153	36,306
경남	창원시	등록 198호	구 마산헌병 분견대	내부 보수 및 전시공간 조성	150,000	150,000	30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6년 예산안(최종)		
					국비	지방비	계
경남	창원시	등록 463호	백두산함 돛대	돛대보수(하부목재보존 처리, 방충방부제도포, 페인트도색)	10,000	10,000	20,000
경남	창원시	사적 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창호 및 외벽 보수	15,400	6,600	22,000
경남	통영시	등록 36호	구 통영청년단 회관	건물 보수보강	25,000	25,000	50,000
제주	서귀포시	등록 310호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10,000	10,000	20,000
제주	서귀포시	등록 311호	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10,000	10,000	20,000
제주	서귀포시	등록 313호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니터링	10,000	10,000	20,000
제주	제주시	등록 306호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및 정밀측량	75,000	75,000	150,000
제주	제주시	등록 307호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안전진단 및 정밀측량	75,000	75,000	150,000
제주	제주시	등록 414호	미카형 증기기관차 304호	내·외부 마감면 보수, 방청도색	125,000	125,000	250,000
제주		등록 308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동굴진지 보수정비	400,000	400,000	800,000

검 토 사 항

6.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2015. 9. 22) 결과에 따른 타 기관 보유 현황 확인 후 「간호교과서(상·하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간호교과서	2권 (상, 하)	상권(세로 22.0 × 가로 15.8), 하권(세로 22.6 × 가로 14.8)(cm)	상권(1908년), 하권(1910년)	양지	신연활자본	장로회 신학대 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 장로 5길 25-1	

(3) 추진 경과

- '간호교과서(상권)에 대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등록 신청 (2015. 4. 8)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간호교과서(상권)'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5. 6. 12)
- 문화재위원회 제7차 검토사항 부의(2015.9.22) 후 결과 : 보류(사유 :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로 알려졌으나, 상권으로만 가치 판단하기보다는 하권에 대한 조사와 타기관에 보유 여부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상·하권 일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타 기관 보유 여부 확인(장로회신학대학교 상권, 하권 보유)
-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장 '간호교과서(상·하권)'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2015. 11. 3)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3.)>

○ ○ ○ ○ 위원

- 우리나라의 간호원양성학교는 1903년 12월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설립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발행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다.
- 『간호교과서』 상·하 두 책은 의학사연구 뿐 아니라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상하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위원

- 조사 대상 유물인 『간호교과서』 상하 2권 2책본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는 물론 의학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교수

- 보구여관에 근무하던 선교사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Edmunds)가 번역·출판한 간호교과서임. 한국 최초인지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간호 분야 자료임은 분명함.
- 비록 번역판이지만 근대적 간호교육 초기에 실제로 사용된 간호교과서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근대문화재과 의견>

- ‘간호교과서(상·하)’ 두 책은 의학사연구 뿐 아니라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금번 조사한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상권, 하권 완본이 있으므로 이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간호교과서」 조사보고서 1부.

「간호교과서」 조사보고서

1. 명 칭 : 간호교과서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3. 소유자 : 장로회신학대학교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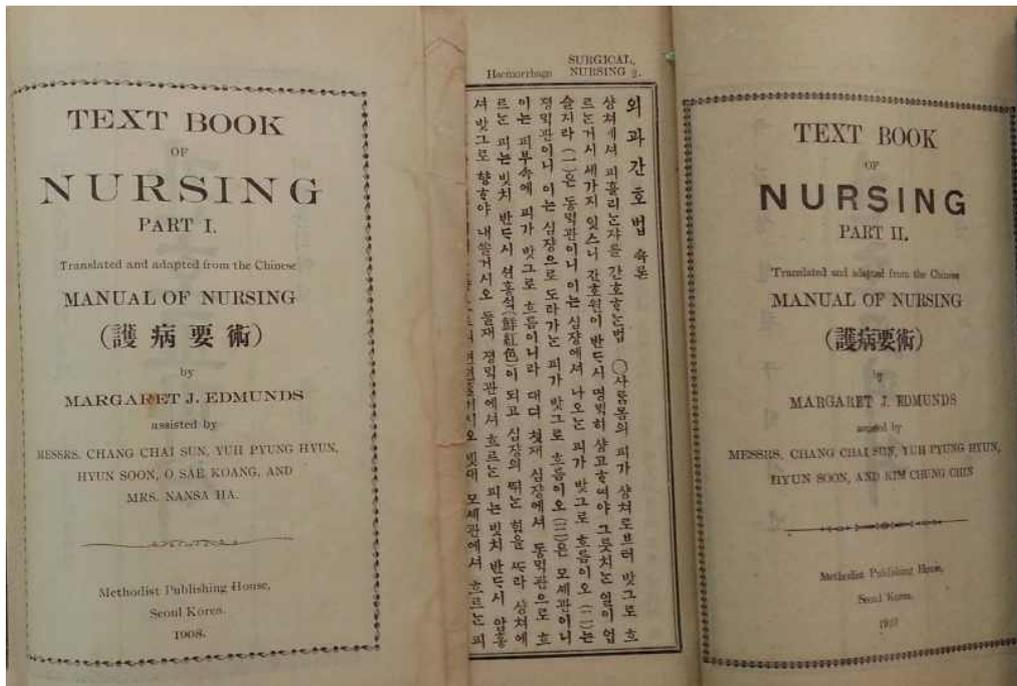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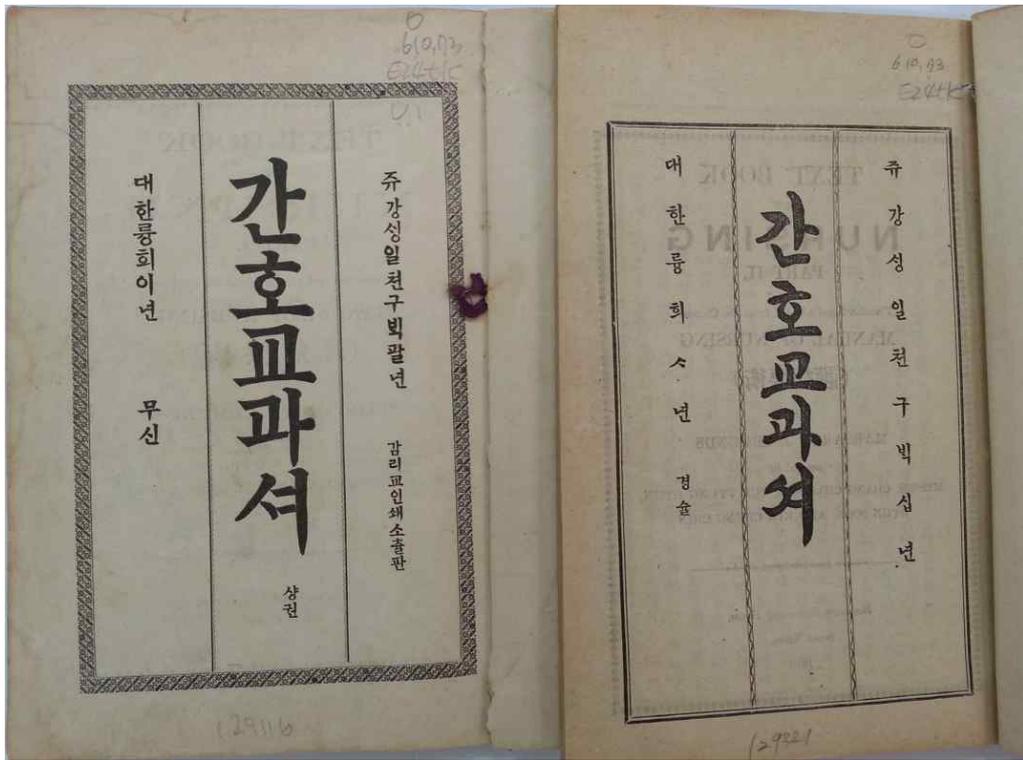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간호교과서』 상하는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상권은 1908년 3월, 하권은 1910년에 서울에 있던 감리교인쇄소(출판사)인 Methodist Publishing House에서 발행되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인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는 1894년에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1900년에 보구여관의 커틀러 의사가 이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에 간호원장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에 서울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그해 12월에 보구여관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887년에 설립된 보구여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며, 여성을 돕고 치료한다는 뜻의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후 1912년 동대문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통합되었고, 1913년 진료소 기능마저 폐쇄되었다고 한다.
- 에드먼즈는 “Nurse”의 한글번역을 우리 고유의 의녀(醫女), 중국의 호병인(護病人)이나 간부(看婦), 일본의 간호부(看護婦) 등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간(看)”과 “호(護)”에다 “여자에 국한되는 ‘부’ 대신 포괄적인 ‘원(員)’을 사용하여 간호원이라는 새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간”은 “책임지다, 돌보다”, “호”는 “보호하고 인도하다”, “원”은 “구성원”이라는 뜻을 가져, 간호원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했다. 또 간호복을 만들고, 간호원의 임무도 제정하는 등 1928년 은퇴할 때까지 목포와 군산 등지에서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에드먼즈는 우리나라 근대 간호 교육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올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그녀에게 수여하였다.
- 우리나라의 간호원양성학교는 1903년 12월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설립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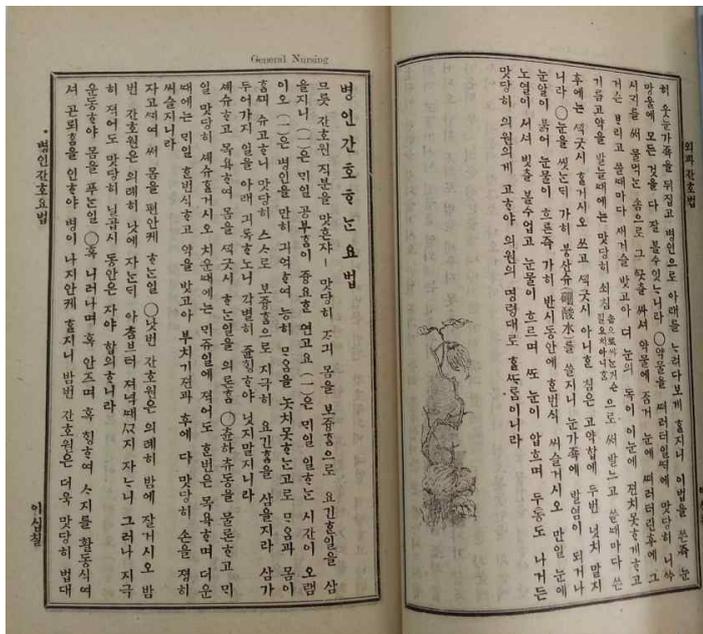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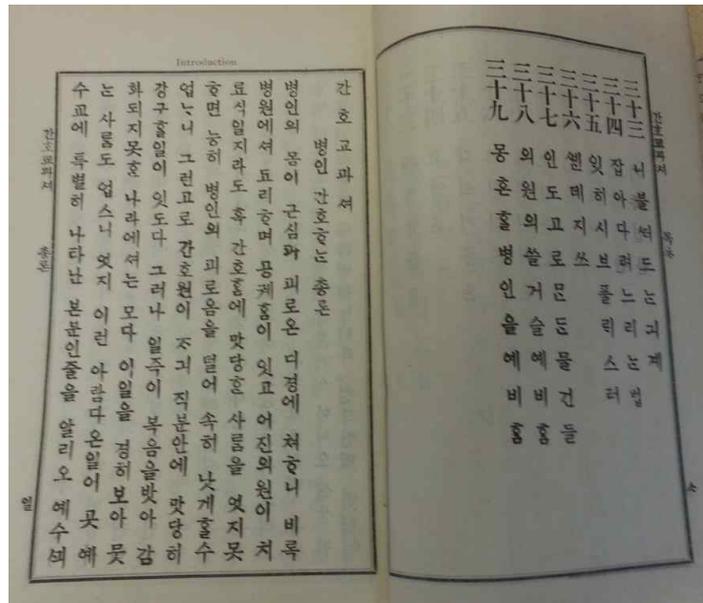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발행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다. 『간호교과서』 상권은 클라라 워스(Clara Weeks)의 『Text book of Nursing: Manual of Nursing』과 이 책의 중국 번역본 『호병요술(護病要術)』(1905년)이 번역대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 책은 미국의 원서와 중국의 번역서를 바탕으로 국역된 것이었다. 그런데 한글에 능숙하지 않았던 에드먼즈가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침선장으로 장책된 상하권 2책은 당시의 다른 책보다는 지질이 고급이어서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 상권의 표제지에는 『간호교과서』 상권이라는 서명의 오른 쪽에는 “주강생일천구백팔년」 감리교인쇄소출판, 왼쪽에는 대한릉희이년」 무신”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이 1908년에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Text book of Nursing』 Part I, Manual of Nursing(護病要術) 등 이 책의 서명 권차, 번역대본이 소개되어 있고, 아래에는 번역자와 조역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휘티어(J. G. Whittier, 1807~1892)가 1892년에 발행한 시집 중에서 젊은 의사에게 주는 종교시(宗教詩) “The Healer(치료자)”중의 일부분이 영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 장(119쪽)에는 “그런고로 사랑함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고…향내 나는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셨느니라.”과 같이 에베소서 5장 1-2절을 5행에 걸쳐 수록해 놓았다. 각 면당 사주쌍변으로 된 광곽에 11행25자를 원칙으로 조판되었다. 각 면의 좌우 난외에는 서명, 편명과 함께 우리말 쪽수가 있다.
- 하권의 표제지에는 『간호교과서』 라는 서명의 오른 쪽에는 “주강생일천구백십년」, 왼쪽에는 대한릉희사년」 경술”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이 1910년에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상권의 형식과 같이 『Text book of Nursing』 Part II, Manual of Nursing(護病要術) 등 이 책의 서명 권차, 번역대본이 소개되어 있고, 아래에는 번역자와 조역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하권은 상권과는 달리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각 면당 사주쌍변으로 된 광곽에 16행39자 전후로 조판되어 있다. 그래서 상권보다는 글자가 작고 전체가 뻑뻑한 느낌이 든다. 상권과 다른 점은 광곽의 상단 여백에 아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의 영문(목차나 용어 등), 곧 「외과간호법 속론」이라는 편명위에는 「SURGICAL NURSING 2」, “순환기의 병”위에는 “Diseases Circulation System” 등을 수록해놓은 점이다. 각 면의 좌우 난외에는 편명과 함께 우리말 쪽수가 있다.
- 에드먼즈는 상권의 서문에서 “번역인 장재선, 검열인 러병현, 하란사, 현순, 오세광”과 같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역할과 성함을 밝혀 놓았다. 곧 장재선(張載善)은 번역, 여병현(呂炳鉉), 하란사(河蘭史), 현순(玄楯), 오세광(吳世光) 등이 검열하였던 것이다. 이 중 장재선은 간호원양성학교에서 산수, 한국어, 붓글씨, 받아쓰기를 가르친 교사였다. 2년 뒤에 간행된 하권 간행의 조역자들의 성명은 영문으로만 소개되어 있는데, 장재선, 여병현, 현순, 김정진(KIM CHUNG CHIN) 등 네 사람이었다. 이렇게 에드먼즈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 번역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 “간간히 긴요한 구절을 증감”도 하였다.

- 이렇게 이 책은 에드먼즈의 단독 번역서는 아니지만 그녀의 주도로 번역, 편찬되고, 또 그녀의 자금으로 출판되었던 것이다. 상권은 “1 총론, 2 신체, 3 근계통, 4 혈맥, 5 호흡, 6 폐장, 7 외과 간호법, 8 청결의 긴요함, 9 미균이 병의 근원, 10 미균의 전염, 11 병인 방의 공기, 12 물의 청결법, 13 만져서 전염됨, 14 간호원의 깨끗함, 15 병인의 깨끗함, 16 기명의 소독법, 17 기계의 소독법, 18 오줌 기계의 소독법, 19 스펀지(Sponges), 20 혈맥 잡아매는 실(Sutures), 21 드레싱의 소독법, 22 몽혼방(Operating room), 23 패독 약물론(Antiseptic Lotion), 24 고약론(Ointments), 25 각색 기름론, 26 드레싱, 27 외과 기계론, 28 모래자루, 29 헤파판(Splints), 30 석고대(Plaster of Paris), 31 면호 헤파판(Starch), 32 가죽 헤파판(Leather), 33 이불 터는 기계(Cradle), 34 잡아당겨 늘이는 법(Method of Extension), 35 어드히시브 플래스터(Strapping), 36 밴디지(Bandages), 37 인도고무로 만든 물건들(India-rubber goods), 38 의원의 쓸 것을 예비함, 39 몽혼할 병인을 예비함” 등 3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외과간호법 속론, 병인 간호하는 요법, 내과간호법, 산모간호법, 갓난아이 간호법, 어린 아이의 병 간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권은 이미 학계에 소개되었지만 하권은 지금까지 학계에 공개되지 않은 탓에 발행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드먼즈가 상권의 서문에서 다음 권(하권)도 “계속 출간하여 완전한 책을 만들고자 하노라.”고 한 기록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등록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인 상하권 완본을 확인하게 되었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간호교과서』 상하 두 책은 의학사연구뿐 아니라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상하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교과서 상권(1908)과 하권(1910)>



<간호교과서 상권(1908)과 하권(1910)>

4) 문헌자료

- 이방원, “보구여관(保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의공학회지』 17권 1호(2008), pp.37-56.
- 이방원,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1903~1933)의 설립과 운영”, 『의사학: 대한 의사학회지』 제20권 제2호(2011. 12), pp.355-393.
- 옥성득, “조선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 1903년에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와 에드먼즈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6호(2012.03), pp.185-225.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⑦, “첫 한글 《간호교과서》의 발간, 1908년”, 『간호신문』 (2012-10-30)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⑤, “한국 간호교육의 선구자 에드먼즈”, 『간호신문』 (2012-08-28)

-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서울: 대한간호협회, 2011)
- 5) 기타
 - 같은 종단의 목회자가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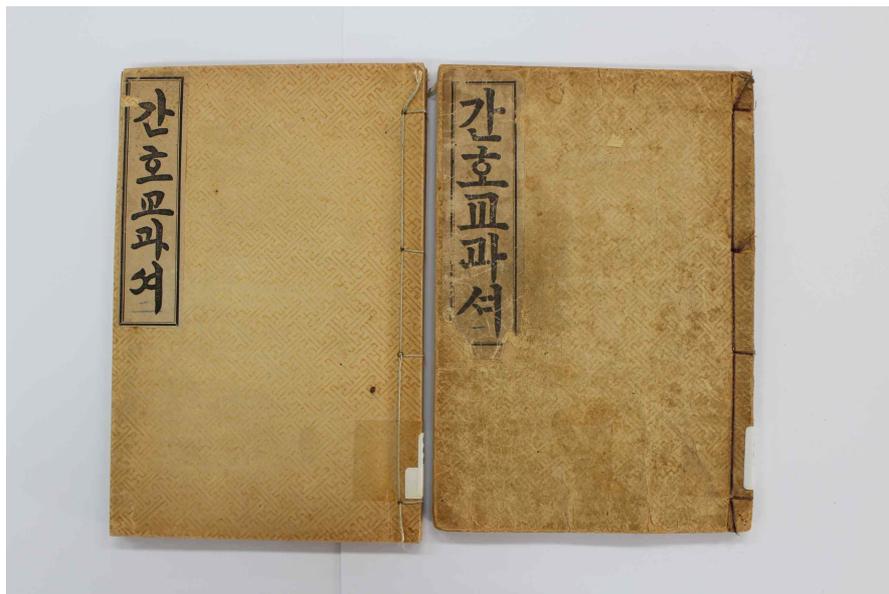
1) 현상

- 상하 2권 2책이다. 사주쌍변으로 된 광곽에 11행25자를 원칙으로 조판되었다. 종이는 최고급 양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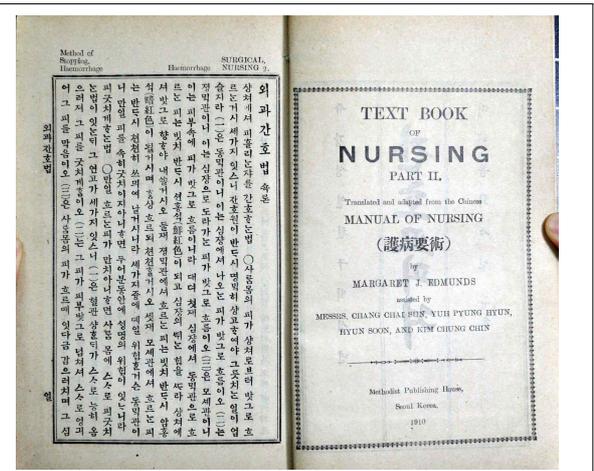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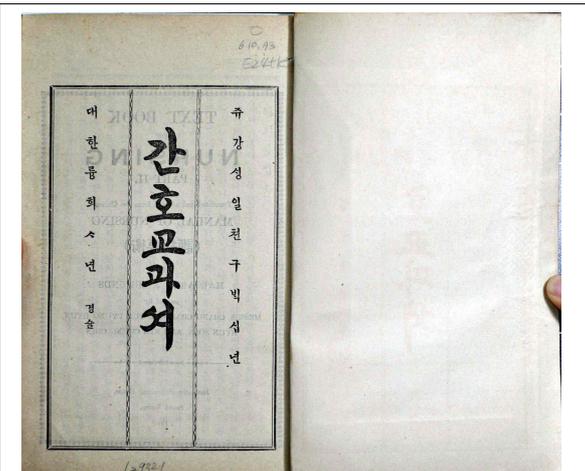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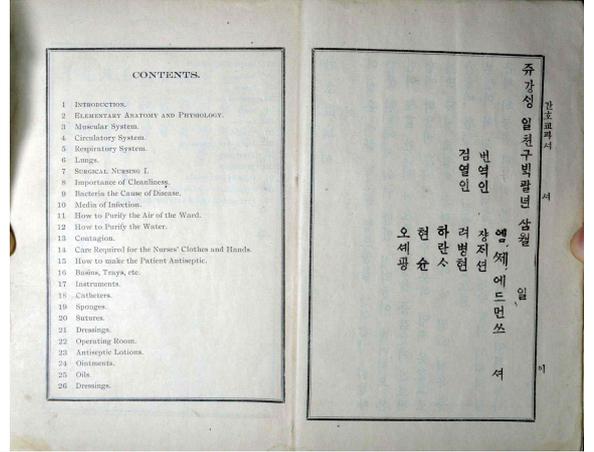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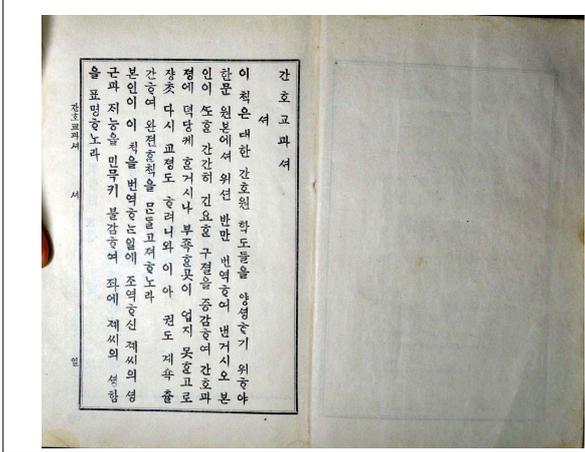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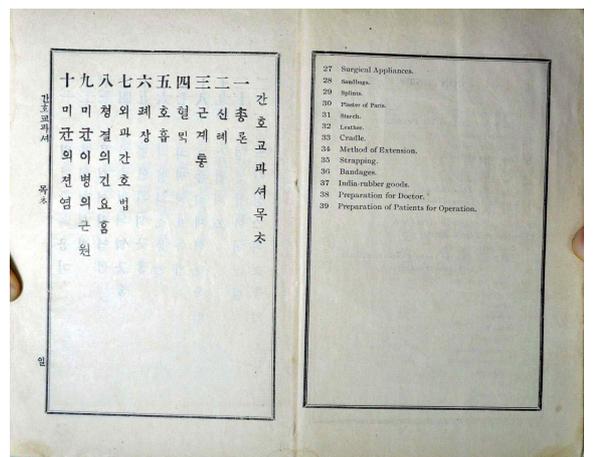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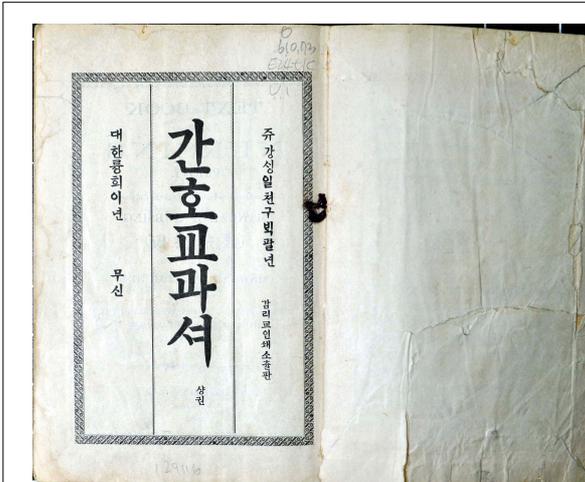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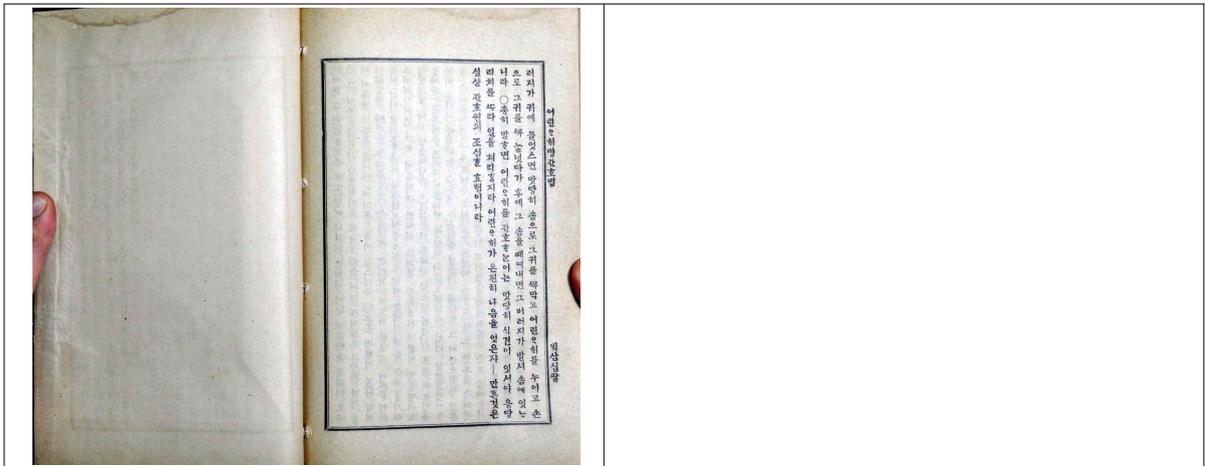
- 조사 유물인 『간호교과서』 상,하권 2책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1908년 3월에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클라라 워스(Clara Weeks)의 『Text book of Nursing: Manual of Nursing』 과 이 책의 중국 번역본 『호병요술(護病要術)』(1905년)이 번역대본이 되었다.
- 에드먼즈는 책의 서문에서 번역인 장재선, 검열인 러병현, 하란사, 현순, 오세광과 같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역할과 성함을 밝혀 놓았다. 곧 번역과 검열에 한국인으로 장재선(張載善), 여병현(呂炳鉉), 하란사(河蘭史), 현순(玄楯), 오세광(吳世光) 등이 참여하여 편찬된 것이다.
- 책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첨제와 표제지는 『간호교과서』이다. 표제지에는 『간호교과서』 상권이라는 서명의 오른쪽으로는 “주강생일천구 백팔년」 감리교인쇄출판” 왼쪽으로는 “대한통회이년」 무신”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를 통하여 이 책이 1908년에 감리교인쇄소에서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면의 좌우 난외에는 서명, 편명과 함께 우리말 쪽수를 적었다.
- 표제지의 이면에는 『Text book of Nursing: Part I』 Manual of Nursing(護病要術) 등 이 책의 번역대본, 번역자와 조역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휘티어(John Greenleaf Whittier, 1807~1892)가 1892년에 발행한 시집 중에서 젊은 의사에게 주는 종교시(宗教詩) “The Healer(치료자)”중의 일부분이 영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 장(119쪽)에는 “그런고로 사랑함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고…향내 나는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셨느니라.”과 같이 에베소서 5장 1-2절을 5행에 걸쳐 수록해 놓았다.
- 조사 유물인 『간호교과서』의 전체 내용은 1. 총론, 2. 신체, 3. 근계통, 4. 혈액, 5. 호흡, 6. 폐장, 7. 외과 간호법, 8. 청결의 긴요함, 9. 미균이 병의 근원, 10. 미균의 전염, 11. 병인 방의 공기, 12. 물의 청결법, 13. 만져서 전염됨, 14. 간호원의 깨끗함, 15. 병인의 깨끗함, 16. 기명의 소독법, 17. 기계의 소독법, 18. 오줌 기계의 소독법, 19. 스펀지(Sponges), 20. 혈맥 잡아매는 실(Sutures), 21. 드레싱의 소독법, 22. 몽혼방(Operating room), 23. 패독 약물론(Antiseptic Lotion), 24. 고약론(Ointments), 25. 각색 기름론, 26. 드레싱, 27. 외과 기계론, 28. 모래자루, 29. 협판(Splints), 30. 석고대(Plaster of Paris), 31. 면호 협판(Starch), 32. 가죽 협판(Leather), 33. 이불 터는 기계(Cradle), 34. 잡아당겨 늘이는 법(Method of Extension), 35. 어드히시브 플래스터(Strapping), 36. 밴디지(Bandages), 37. 인도고무로 만든 물건들(India-rubber goods), 38. 의원의 쓸 것을 예비함, 39. 몽

- 혼할 병인을 예비함 등 3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자인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는 1894년에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1900년에 보구여관의 커틀러 의사가 이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에 간호원장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에 서울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그해 12월에 보구여관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887년에 설립된 보구여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며, 여성을 돕고 치료한다는 뜻의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후 1912년 동대문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통합되었고, 1913년 진료소 기능마저 폐쇄되었다고 한다.
 - 에드먼즈는 “Nurse”의 한글번역을 우리 고유의 의녀(醫女), 중국의 호병인(護病人)이나 간부(看婦), 일본의 간호부(看護婦) 등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간(看)”과 “호(護)”에다 “여자에 국한되는 ‘부’ 대신 포괄적인 ‘원(員)’을 사용하여 간호원이라는 새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간”은 “책임지다, 돌보다”, “호”는 “보호하고 인도하다”, “원”은 “구성원”이라는 뜻을 가져, 간호원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했다. 또 간호복을 만들고, 간호원의 임무도 제정하는 등 1928년 은퇴할 때까지 목포와 군산 등지에서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에드먼즈는 우리나라 근대 간호 교육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올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그녀에게 수여하였다.
 - 조사 대상 유물인 『간호교과서』는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교과서





3) 문헌자료

- 이방원, “보구여관(保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의공학회지』 17권 1호(2008), pp.37-56.
- 이방원,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1903~1933)의 설립과 운영”, 『의사학: 대한의사학회지』 제20권 제2호(2011. 12), pp.355-393.
- 옥성득, “조선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 1903년에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와 에드먼즈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6호(2012.03), pp.185-225.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⑦, “첫 한글 《간호교과서》의 발간, 1908년”, 『간호신문』 (2012-10-30)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⑤, “한국 간호교육의 선구자 에드먼즈”, 『간호신문』 (2012-08-28)
-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서울: 대한간호협회, 2011)

4) 종합의견

- 조사 대상 유물인 『간호교과서』 상하 2권 2책본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 (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1908년 3월에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는 물론 의학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교수>

1) 현상

- 보존상태 양호

2) 내용 및 특징

- 대한제국 시기 보구녀관에 근무하던 선교사 Margaret Edmunds가 번역하여, 감리교인쇄소에서 출판한 간호교과서임. 한국 최초의 간호교과서인지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간호 분야 자료임은 분명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보구녀관에 근무하던 선교사 Margaret Edmunds가 번역, 출판한 간호교과서임. 한국 최초인지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간호 분야 자료임은 분명함.
- 비록 번역판이지만 근대적 간호교육 초기에 실제로 사용된 간호교과서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4) 종합의견

- 비록 번역판이지만 근대간호 도입기에 실제 쓰였던 간호교과서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7.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12)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옥련암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	1점	세로 100.0 × 가로 246.5(cm)	1934년	면 바탕에 채색	옥련암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 96번길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12.)>

- ○ ○ ○ 전문위원
 - 이 영산회상도는 1934년에 화경을 비롯한 3명의 화승들이 함께 그린 작품으로, 이 불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도와 색채, 필선, 도상의 배치, 단조로운 황갈색의 채운(彩雲) 등은 전반적으로 19세기 후반기 불화의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20세기의 요소를 담아 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유입된 새로운 근대적 화풍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 근대적 요소가 보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화풍의 수용 보다는 전통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한 불화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함.

○ ○ ○ ○ 교수

- 20세기 전반기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경을 수화승으로 하여 성한과 두정이 함께 그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손상 없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34년이라는 근대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신체비례와 세련된 필선 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세기 초반 서울·경기지역 불화 화풍을 이해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강한 음영법에 수채화풍의 채색법 등 근대적 불화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전통적인 불화화풍에 충실한 점으로 보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아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 ○ ○ 강사

- 이 불화는 화폭의 규모와 화면구성, 그리고 명암법의 사용과 금박의 사용 등 근대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기성을 지니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제작자의 화풍 상의 특징과 역량이 잘 발휘된 불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당시 조성된 불화들 중 이 그림과 유사한 도상과 화풍의 작품들이 다수 남아있어 추후에 등록문화재로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근대 불화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전통적인 불화화풍에 충실한 점을 보아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는 미흡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6명, 부결 6명

붙임 :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 조사보고서 1부.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 조사보고서

1. 명 칭 :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
2.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호 96번길
3. 소유자 : 옥련암
4. 조사자 의견

<○○○ 전문위원>

1) 내용 및 특징

- 조성화원 : 화경(和璟), 성한(盛漢), 두정(斗正)
- 아산 옥련암 영산회상도는 묘사체를 겸해 사용하고 있는 대중방의 중앙에 마련된 벽감(壁龕)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화는 근대기의 고승 만공월면(滿空月面, 1871-1946)의 증명으로 화경(和璟), 성한(盛漢), 두정(斗正) 등 3명의 승려 화원이 1934년에 그린 그림이다. 이들 화승들은 이 불화를 제작할 때 함께 봉안할 석고아미타여래삼존상과 석고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조각과 불화에 모두 능한 화사(畫師)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화승 화경은 보살사 자운암 신중도(1930년)와 칠성도(1930년)와 용인포교당 현왕도, 연주암 아미타설법도(1932년), 정법사 영산회상도(1938년), 미타사 금보암 현황도(1942) 등의 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림은 석가여래가 영축산(靈鷲山)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설하고 있는 장면을 도설한 것인데, 벽감 중앙 벽면의 규모에 알맞게 제작되었다. 그림은 본존 석가여래·문수·보현보살의 삼존상을 비롯하여 관음·대세지·미륵·지장보살과 아난·가섭을 비롯한 10대 제자, 그리고 4구의 사천왕상을 수평으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 본존 석가여래는 화면의 정중앙에 청색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광배는 원형의 두·신광을 갖추었으며, 테두리는 몇 개의 채색 띠로 표현하였다. 특히 가장 바깥쪽의 테두리는 두텁고 짙은 청색선으로, 신광의 표면은 금박으로 칠해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 머리는 낮고 육계는 뾰족하게 솟았으며, 그 위에 둥근 정상계주를 올려놓았다. 계주에서 흘러나온 형형색색의 서광(瑞光)은 두 갈래로 갈라져 채색구름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본존의 얼굴은 둥글 넓적하며,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 조밀하게 표현하였다. 신체는 건장하며, 상호와 옷깃 등에는 음영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 착의법은 대의자락으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드리운 변형식 편단우견이며, 불의(佛衣)의 표면에는 둥근 금니로 원문 속에 넝쿨문을 넣었고, 옷깃과 군의(裙衣) 등에도 금니로 넝쿨무늬 등을 그려 넣어 화려함을 더하였다.
- 본존의 좌우에는 청색 사자와 흰색 코끼리 위에 반가좌로 앉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표현되었다. 문수보살은 두 손으로 금색으로 칠한 여의를 들었고, 보현보살은 백련(白蓮)위에 경책을 올려놓은 지물을 취하였다. 석가여래의 협시로 기사(騎獅) 문수보살(文殊菩薩)과 기상(騎象) 보현보살(普賢菩薩)과 반가좌로 앉은 형태는 1936년작 경국사 영산전 영산회상도에서도 확인되는데, 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관음과 대세지보살은 협시보살상 보다 약간 측면 뒤쪽으로 물려 공간감 있게 표현하였다. 관음보살상은 보관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두었고, 두 손으로 정병을 올려 둔 연꽃가지 쥐었다. 대세지보살상은 보관에 정병을 두었고, 두 손으로 백련(白蓮)을 쥐었다. 그 좌우에는 미륵과

지장보살이 표현되었는데, 미륵은 합장하였으며, 지장보살은 여래가 표현된 석장을 잡았다.

- 10대 제자는 석가여래의 두광 좌우에 석가모니를 향해 합장하고 있는 가섭과 아난을 비롯한 4구의 제자를 배치하였고, 하면 좌우 상단 모퉁이 천공(天空)에는 각각 3구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 정감 있게 표현되었다. 화면의 빈 공간은 청색과 백색으로 음운을 드리운 황갈색 구름으로 채워 상서로운 기운을 불어 넣었다.
- 사천왕상은 화면 좌우에 측면에 크게 묘사되었다. 비파를 쥌고 있는 북방 다문천왕과 보탑을 받쳐 든 서방 광목천왕은 무릎 꿇고 본존을 향해 예를 올리듯이 앉았으며, 보검을 쥌 동방 지국천왕과 용을 잡고 있는 남방 증장천왕을 걸음을 내딛으며 주변을 경계하는 역동적인 자세로 표현되었다. 이곳에서는 사천왕상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크게 부각시켰는데, 이렇듯 사천왕상이 크게 부각된 모습은 1884년 진관사 영산전 영산회상도와 1895년 봉은사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불화에서 보이는 흔히 보이는 양상으로, 이 불화도 이러한 시대적 경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불화에서 보이는 둥글 납직한 얼굴형에 작고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광배와 대의, 지물 등에 짙은 청색과 금색으로 강조한 기법 등은 화승 화경이 즐겨 사용한 표현방식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수화승 화경이 이 보다 4년 뒤인 1938년에 그린 서울 정법사 영산회상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화 기]

證明 比丘 月面 比丘 惠法 比丘 性俊

誦呪 比丘 慶相

持殿 比丘 全上

金魚片手 比丘 和環 比丘 盛漢 比丘 斗正

鍾頭 沙彌 龍九

別座 沙彌 性浩

供司 沙彌 全上

化主 比丘 慶相

大施主

清信士 甲戌生 劉文煥

清信女 乙酉生 朴大慈行

佛紀二九六一年甲戌四月五日

2)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영산회상도는 1934년에 화경을 비롯한 3명의 화승들이 함께 그린 작품으로 이 시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은 가로로 긴 화면에 석가여래를 비롯한 문수·보현보살 등 6대 보살, 10대 제자, 사천왕상 등의 권속을 구도의 큰 변화 없이 영산회상의 장면을 수평으로 길게 펼쳐놓았다. 본존은 높은 육계와 둥근 정상계주를 가졌고, 인물들은 대체로 둥글 납직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색채는 주로 명·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속에 짙은 코발트풍의 청색과 금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인물의 세부 표현에는 강하게 두드러지지 않는지만 부분적으로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특히 화면의 중심

이 되는 석가여래삼존 이외 사천왕상을 크게 부각시킨 점이 특색이 있다. 필선은 비수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필선을 사용하였다. 이 불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구도와 색채, 필선, 도상의 배치, 단조로운 황갈색의 채운(彩雲) 등은 전반적으로 19세기 후반기 불화의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20세기의 요소를 담아 낸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유입된 새로운 근대적 화풍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 근대적 요소가 보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화풍의 수용 보다는 전통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한 불화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3) 종합의견

- 등록가치 미흡

<○○○○ 교수>

1) 현상

- 석가모니의 영산설법 장면을 간략하게 그린 靈山會上圖로서 현재 옥련암 대중방에 봉안되어 있다. 100.0(91.0)cmX246.5(226.0)cm의 가로로 긴 면바탕에 석가모니 삼존과 4보살, 10대제자, 사천왕을 묘사하였다.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 내용 및 특징

- 화면 중앙에 위치한 석가모니는 원형의 頭光과 身光을 지니고 연화대좌 위에 降魔觸地印을 결하고 結跏趺坐하였다. 머리에는 높게 肉髻가 묘사되었으며 육계 중간과 정상에는 각각 髻珠로 장식되었다. 이마가 약간 넓은 역삼각형의 얼굴에는 가는 선으로 이목구비가 묘사되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안정된 모습이다. 着衣法은 오른쪽 어깨를 옷자락으로 덮은 변형식 偏袒右肩式으로, 안에는 裙衣를 입고 붉은 띠로 묶었다. 대의 자락에는 큼직한 원문의 문양이 시문되었고, 가장자리에는 草花文을 그려 넣어 화려함을 더하였다. 석가모니의 앞에는 靑獅子를 탄 文殊菩薩과 白象을 탄 普賢菩薩이 각각 如意와 經冊을 얹은 白蓮을 들고 본존을 향해 앉아있다. 문수보살 옆에는 劍과 琵琶를 든 2구의 천왕이 배치되었는데 비파를 연주하는 천왕은 오른 무릎을 세우고 왼 무릎을 꿇고 있다. 이들과 상대하여 보현보살 옆에는 龍과 寶珠, 寶塔를 든 2구의 천왕이 배치되었는데, 이중 보탑을 든 천왕 역시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다. 이처럼 사천왕이 좌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19세기 후반 경부터 보이는 특징으로 이 불화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한편, 화면 상단에는 4보살과 10대 제자가 거의 일렬로 배치되었다. 향우측에는 化佛이 모셔진 보관을 쓰고 정병이 올려진 연꽃가지를 든 관음보살상과 합장하고 있는 보살상, 향좌측에는 淨瓶이 안치된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든 大勢至菩薩과 錫杖을 짚고 있는 僧形의 地藏菩薩이 배치되었다. 화면 상단에는 석가모니 좌우로 阿難尊者和 迦旻尊者를 비롯한 열 명의 제자를 일렬로 배치하였는데, 화면 가장자리의 제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 채색은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흰색과 황색, 청색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화면 상하단과 일부 권속들의 옷과 머리 등에 특히 코발트 계통의 밝은

청색을 많이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제자와 사천왕에는 강한 음영법도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19세기 말 이후의 불화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필선은 전체적으로 가늘면서도 유려한 편으로, 제작시기는 비록 늦지만 화승들의 필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 화기는 화면 좌우 가장자리에 적색란에 세로로 길게 마련되어 있다. 향우측화기에는 緣化秩, 향좌측 화기에는 施主秩과 조성연대가 적혀있다. 이에 의하면 이 불화는 1934년에 金魚片手 和璟을 수화승으로 하여 盛漢, 斗正이 함께 조성했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해에 영산회상도 앞에 봉안된 소조관음보살좌상도 함께 조성하였다.

3) 문헌자료

[화기]

(향우측)

證明 比丘 月面 比丘 惠法 比丘 性俊
 誦呪 比丘 慶相
 持殿 比丘 慶上
 金魚片手 比丘 和璟 比丘 盛漢 比丘 斗正
 鍾頭 沙彌 龍九
 別座 沙彌 性浩
 供司 沙彌 全上
 化主 比丘 慶相

(향좌측)

大施主
 淸信士 甲戌生 劉文煥
 淸信女 乙酉生 朴大慈行
 佛紀二九六一年甲戌四月五日

4) 기타

- 1934년이라는 근대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신체비례와 세련된 필선 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세기 초반 서울·경기지역 불화 화풍을 이해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강한 음영법에 수채화풍의 채색법 등 근대적 불화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전통적인 불화화풍에 충실한 점으로 보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아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종합의견

- 20세기 전반기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경을 수화승으로 하여 성한과 두정이 함께 그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손상 없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34년이라는 근대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신체비례와 세

련된 필선 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20세기 초반 서울·경기지역 불화 화풍을 이해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강한 음영법에 수채화풍의 채색법 등 근대적 불화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전통적인 불화화풍에 충실한 점으로 보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아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강사>

1) 현황

- 아산 옥련암 요사 감실 벽면에 보살상의 후불화로 걸려 있음

2)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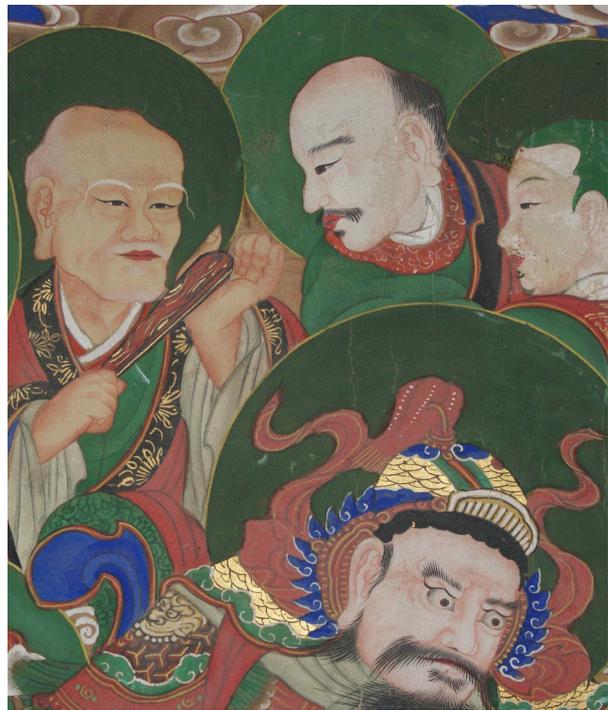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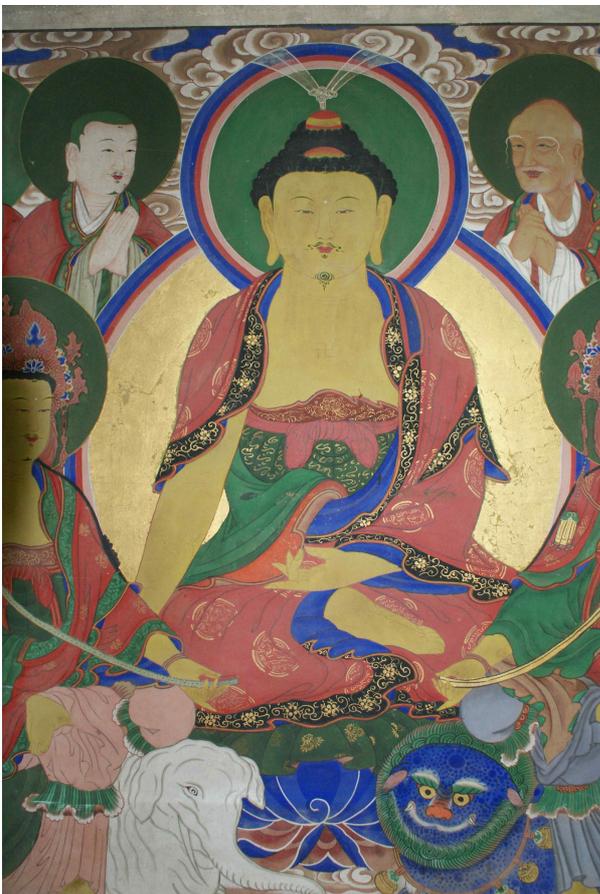
- 이 불화는 가로 길이가 유달리 긴 화폭으로 되어 있으며, 화폭의 가장자리에 안료 박락과 찌똥·얼룩 등 오염의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화기가 잘 남아 있어 불화제작 일시와 관련인물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다.

3) 내용 및 특징

- 이 불화는 화기에 의하면 1934년(불기 2961년) 劉文煥과 朴大慈行이 시주하고, 和環을 수화승으로 하여 화승 盛漢, 斗正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증명은 月面으로 송만공 스님으로 추정되며, 화주는 慶相이다. 화승 화경(石城和環)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였으며, 서양화법, 그 중에서도 명암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화승이다. 1934년에는 서울 진관사에서 이 그림과 동일하게 월면이 증명을 맡고 화주였던 경상이 시주하여 화승 화경이 단독으로 제작에 참여, 대웅전의 현왕도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 이 그림은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중앙에는 석가삼존상을 그리고 그 좌우에 4보살, 사천왕, 석가모니의 제자들을 가로로 긴 화폭에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가로로 긴 화폭은 근대기에 자주 보이는데, 이 시기 건축된 소규모 사찰의 벽면 규모와 연관된다.
-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배경의 구름과 존상들의 안면, 옷주름에 명암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며, 코발트 블루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점에서 근대기의 특징이 보인다. 또 석가모니의 광배와 사천왕의 장검 등 금속성의 재료를 표현하기 위해 금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수화승의 화풍이 보인다. 각 존상들의 옷에 시문된 섬세한 문양 등 전체적으로 정성들인 흔적이 보이며, 화승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작품이다.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불화는 화폭의 규모와 화면구성, 그리고 명암법의 사용과 금박의 사용 등 근대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기성을 지니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제작자의 화풍 상의 특징과 역량이 잘 발휘된 불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당시 조성된 불화들 중 이 그림과 유사한 도상과 화풍의 작품들이 다수 남아있어 추후에 등록문화재로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불화는 예배용 후불화라는 특성상 축농의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에도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를 요한다. 또 이 그림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의 역량이 잘 발휘된 작품으로서, 아산에 전통사찰 및 전통불화의 수가 적은 만큼 아산의 주요 문화재로 널리 홍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6) 종합의견

- 추후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검토 하는 것이 좋겠음.

8.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0.3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형식	소유자	소재지	비고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 草木知	2점	세로 94.0× 가로 28.0(cm)	1936년 추정	종이	필사	죽자	인덕대 학교 아정미 술관	서울 특별 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 학교 아정 미술관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0.30.)>

- ○ ○ ○ 위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김구(1876.7.11~1949.6.26)가 회갑을 맞이한 1936년에 중국의 진회(秦淮, 남경)에서 쓴 유묵 2점이다. 유묵의 글은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지은 우국시(憂國詩) 「진중음(陣中吟)」 8구중에서 2구에 해당한다. 내용은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

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맹세하니 물속의 동물들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것이다. 충무공이 일본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와 같이 김구 역시 이러한 마음다짐으로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유묵 2점은 김구가 남경에서 숨어 살던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찾을 수 있으나 사료성이나 역사성을 찾기는 어려운 유물이다. 더욱이 같은 시기 동일한 내용의 유묵이 다수 전한다는 점에서 희소성도 찾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유묵 2점은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 ○ ○ 위원

- 백범 김구 선생이 1936년 진회(난징)에서 자신의 회갑일에 회호하여 양주은 선생에게 기념으로 드림. 이것을 양주은 선생이 소장하다 인덕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 기증함.
- 백범 김구 유묵은 친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역사적 가치와 유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등록문화재 지정 가치는 미흡함.

○ ○ ○ ○ 연구원

- 본 유품은 한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이 회갑일인 1936년 8월 29일 쓴 것으로 추정·확인되는 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관내(關內) 지역 독립운동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당시의 수난상과 국난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해당 유물은 친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일한 시기·내용의 유묵이 다수임. 이에 희소성의 가치가 부족하여 등록 가치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6명, 부결 6명

붙임 :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조사보고서 1부.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조사보고서

1. 명 칭 : 백범 김구 유묵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3. 소유자 :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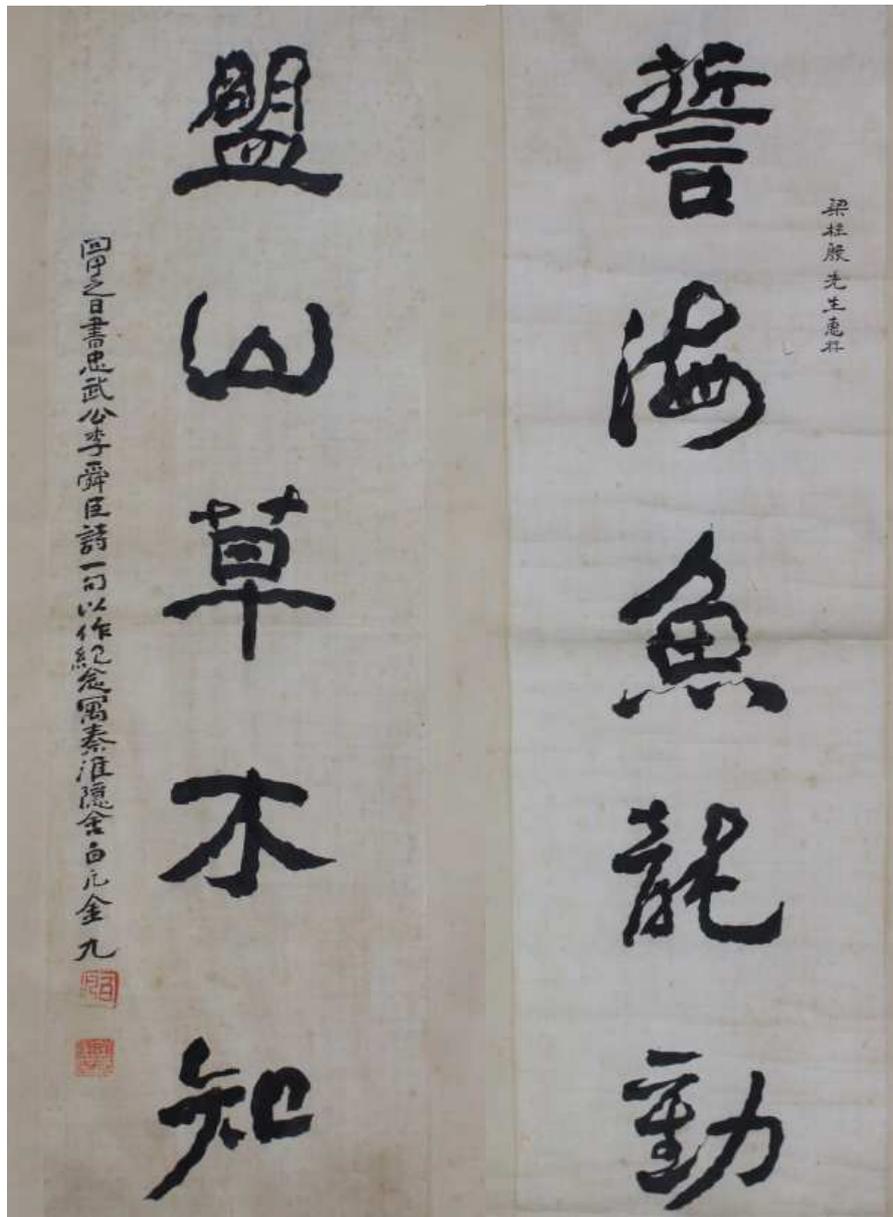
<○○○ 위원>

1) 현상

- 대체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김구(1876.7.11~1949.6.26)가 회갑을 맞이한 1936년에 중국의 진회(秦淮, 남경)에서 쓴 유묵 2점이다. 유묵의 글은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지은 우국시(憂國詩) 「진중음(陣中吟)」 8구중에서 2구에 해당한다. 내용은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맹세하니 물속의 동물들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것이다. 충무공이 일본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와 같이 김구 역시 이러한 마음다짐으로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첫 번째 작품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孫柱殷先生惠存(손주은선생혜존)”이라고 묵서되어 있는데, 먹의 농도나 필체로 보아 후일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작품의 왼쪽에는 “回甲之日忠武公李舜臣詩一句以作紀念寓秦淮隱舍白凡金九(회갑 날에 충무공 이순신의 시 한구를 써서 진회(남경)에서 숨어살던 것을 기념하다.)”가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먹의 농도 등으로 보아 유묵을 쓰던 당시의 글씨로 보인다. 그 아래에는 「白凡(백범)」, 「金九之印(김구지인)」이라는 인장이 찍혀있다.
- 이렇게 이 유묵 2점은 1936년에 김구가 회갑을 맞이하여 숨어 살던 때를 기념하여 남긴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유묵은 이후 홍사단 창설자이자 재미 애국자인 양주은(1879~1981)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주은은 다시 이 유묵 2점을 친분이 있던 인덕공업고등학교 설립자인 박인덕에게 1967년에 증여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필적이 여럿 있는데다 회갑 날에 쓴 동일한 유묵도 여러 점이 현전하고 있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김구의 유묵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제법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김구의 유묵은 3점이 있다. 이중에서 제442-1호(백범 김구 유묵 韓美親善平等互助)은 1949년 1월에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 헨더슨 (Gregory Henderson)에게 써 준 것으로 사료적, 상징적인 가치가 크다. 또 제 442-2호(명칭 백범 김구 유묵 愼其獨)와 제442-3호(백범 김구 유묵 思無邪)는 서거 당시 김구의 책상 위에 있었던 것으로 혈흔까지 남아 있어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이다.
- 이에 비해 이 유묵 2점은 김구가 남경에서 숨어 살던 시기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찾을 수 있으나 사료성이나 역사성을 찾기는 어려운 유물이다. 더욱이 같은 시기 동일한 내용의 유묵이 다수 전한다는 점에서 희소성도 찾기는 어

럽다. 그런 점에서 이 유묵 2점은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문헌자료

- 서울시 문화재조사보고서(2014. 10.13)
- 유물상세설명(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2015)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위원>

1) 현황

- 백범 김구 선생이 1936년 진회(난징)에서 자신의 회갑일에 회호하여 양주은 선생에게 기념으로 드림. 이것을 양주은 선생이 소장하다 1967년 인덕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 기증.

2) 현상

- 백범 김구 선생이 1936년 진회(난징)에서 자신의 회갑을 맞이하여 충무공 이순신의 5언 시구를 족자(대련) 2점으로 회호하여 양주은 선생에게 증여한 작품이다. 당시 김구는 중국 남경 秦淮河(진회하)에서 은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미주교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은 재정적 후원을 해준 감사의 표시로 여러 사람들에게 회호를 하여 보냈다. 이 중 이순신의 시에서 한 구절을 딴 회호 작품은 양주은 이외에 하와이 안창호 목사에게도 보냈는데, 이는 현재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시구를 쓴 김구의 유묵은 여러 점 전하는데, 특히 당시 회갑 때 쓴 것도 몇 점 전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내용이 6점이 남아 있다.
- 백범 김구 유묵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3) 내용 및 특징

- 족자(대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上聯(상련)의 본문은 ‘誓海魚龍動(서해어룡동)’을 예서체와 행서체를 섞어서 썼고, ‘誓海(서해)’의 오른쪽 중간에다 ‘梁柱殷先生惠存(양주은선생혜존)’이라는 上款(상관)을 예서체로 서사하였다.
- 下聯(하련)의 본문은 ‘盟山草木知(맹산초목지)’를 예서의 기조에 약간 행기를 가하였고, 왼쪽에는 ‘盟(맹)’자 아래에서 ‘木知(목지)’ 중간에 이르기까지 ‘回甲之日 書忠武公李舜臣詩一句以作紀念寓秦淮隱舍白凡金九(회갑지일서충무공이순신시일 구이작기념우진회은사백범금구)’라는 下款(하관)을 예서체로 서사하였다. 끝에는 ‘白凡(백범)’·‘金九之印(금구지인)’이란 성명인을 朱文·白文(주문·백문)으로 찍었다.
- 상련에서 ‘誓(서)’자의 ‘言(언)’에 점이 없고, 과책이 분명한 예서체이지만, 이후 ‘海魚龍動(해어룡동)’은 행서체로 서사하여 생동한 기운을 나타내었다. 하련은 ‘草(초)’에서 ‘艹’의 부분만 행기를 나타내었을 뿐 전체적으로 예서체를 기조로 삼고 있어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전체적 필획은 백범 특유의 顛筆(전필)이 나타

나 있지만, 소박하면서도 중후한 풍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련·하련의 본문과 하관은 전체적 기맥이 통하여 한 기운을 이루고 있지만, 상관은 이것과 다른 풍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상관은 당시 같이 썼던 것이 아니라 이후 필요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 성명을 따로 써서 기념으로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작품은 전체적으로 속기가 한 점도 없고, 꾸밈이 없이 소박하고 검소하며 굳센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 백범 서예를 연구하는 데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 미흡
- 백범 김구 유묵은 비록 친필로 양주은 선생에게 써 준 작품이나 역사적 의미와 유일성이란 기준에서 보면, 등록문화재 지정 가치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작품의 예술적 측면에서 보면, <愼其獨(신기독)> · <思無邪(사무사)> · <韓美親善平等互助(한미친선평등호조)> · <流芳百世(유방백세)> 등의 작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작품들이 있어 유일성이나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김구 유묵들을 별도로 일괄 조사하여 내용·서체·회귀성·역사성·예술성 등을 평가한 뒤에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백범 김구 유묵의 현재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향후 적정 온습도·조도 및 청정 공기 유지를 권장하고, 가급적 어렵게 보관 유지를 바란다. 만약 전시를 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원목 오동나무 상자에다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백범 김구 유묵은 독립운동가의 친필로 나라 사랑과 민족애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특별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백범 김구 유묵은 친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역사적 가치와 유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등록문화재 지정 가치는 미흡함.

<○○○○ 연구원>

1) 현상

- 유묵의 바탕이 되는 종이 부분이 다소 변색, 또는 탈색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임. 한자 글씨 먹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잘 보존·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내용 및 특징

- “梁柱殷先生惠存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回甲之日書忠武公李舜臣詩一句以作紀念寓秦淮隱舍白凡金九 [百凡] [金九](낙관)
 (“양주은선생혜존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회갑지일서충무공이순신시일구이작기념우진회는사백범김구 [백범] [김구]”) 라고 쓰여 있음

- * 이를 해석하면 “양주은 선생 잘 간직해 주십시오. 바다에 맹서하니 물고기들이 감동하며, 산에 맹서하니 초목이 알아주네. 회갑일에 충무공 이순신의 시 한 구절을 써서 기념으로 함. (중국 남경의) 진회 은둔처에서 백범 김구”

** 백범 김구 선생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上海) 홍구(虹口)공원 의거 이후 일제의 수사망을 피해 杭州·嘉興·南京(항주·가흥·남경) 등지를 전전하고 있었는데, 1935~37년 경에는 남경의 秦淮河(진회하) 부근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 때 양주은 목사 등 재미교포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므로, 여러 점의 유물을 써서 독립운동가나 후원자들에게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덕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목과 동일한 내용의 유목이 독립기념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품은 한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이 회갑일인 1936년 8월 29일 쓴 것으로 추정·확인되는 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관내(關內) 지역 독립운동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당시의 수난상과 국난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당시 기록과 최근의 연구, 관계자 및 대학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김구 주석이 중국 남경에서 휘호한 유목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추후 정밀한 고증과 검증,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우리민족 수난의 증거자료, 독립운동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유사한 내용의 유물이 수점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문헌자료

- 조동걸,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1995.
- 백범김구전집간행위원회 편, 『백범김구전집』 11, 234~236쪽 참조.
-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357~360쪽).
- 김구(도진순 엮고보탬), 『백범어록』, 돌베개, 2007.
-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미주한인이민100주년 남가주기념사업회, 2002.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양주은)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상해를 떠나 항주, 가흥을 전전할 때 김구 역시 가흥이나 해염(海鹽) 등으로 도피생활을 했지만, 김구는 1935년 경 남경의 秦淮河 부근에서 은거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 무렵 그를 추종하는 한국국민당 계통의 다수의 청년들도 주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음(조동걸, 위의 책, 197~199쪽 참조).
- 따라서 1936년 8월 29일경(음력 7월 11일), 즉 김구의 회갑일에 양주은에게 위 유목을 써서 증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사실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 양주은의 독립운동 관련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 199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사실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음.
- 소장 경위가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으나, 유사 물품이 수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7) 종합의견

- 한국독립운동사와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김구 주석이 미국에 있던 양주은(梁柱殷) 목사에게 휘호하여 증정한 유묵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9. 「사향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사향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향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26)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014년도 '근·현대문화유산 천주교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후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대상으로 선정)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사향가	1권	세로 19.2 × 가로 15.7(cm)	1897년 추정	종이 (저지)	필사 본	○○○ (개인)	전라북도 완주군 내월리 다리실길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26.)>

- ○ ○ ○ 위원

- 『사향가』는 금베드로가 1897년 12월에 편집하여 필사한 천주가사집임. 『사향가』는 현전하는 천주가사 중에서 종합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우리 고유의 가사 양식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또 박해시대 토착화된 교리서의 역할을 한 가사이므로 교회사, 문화사의 측면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음.
- 그러나 초기 선본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아직 확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본을 포함하여 여러 이본의 계통성과 선본에 대해 학계에서 확정된 다음에 문화재 지정심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 ○ 전문위원

- 해당 유물은 천주교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가사집은 작성연대(1897년 12월)가 확실하고, 또한 저술가(금베두루)가 명기되어 있어 서지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수록된 「사향가」는 내용적으로도 박해시대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천주교 가사 연구에 일정하게 공헌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천주교 가사집』이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질려면 내용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이나 역사적 사실이 담겨야하나, 천주교 가사는 교리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 ○ 교수

-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으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음.
- 시대(19세기 천주교 박해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음.

○ ○ ○ ○ 교수

- 해당 유물은 문화사적, 교회사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음.

<근대문화재과 의견>

-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우리 고유의 가사 양식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박해시대 토착화된 교리서의 역할을 한 가사이므로 교회사, 문화사의 측면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으나 초기 선본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아직 확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본을 포함하여 여러 이본의 계통성과 선본에 대해 학계에서 조사가 필요하기에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검토는 후에 보완 조사·검토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학계 검토 선행 후 종합검토 필요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사향가」 조사보고서 1부.

「사향가」 조사보고서

1. 명 칭 : 사향가
2.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다리실길
3. 소유자 : ○○○(개인)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앞뒤의 원 표지는 일부 손상되었으나 원문은 손상된 부분이 없음.(원래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사향가 / [편저자 미상]

필사본

[1897]

1책(46장) : 무계, 10행16자 ; 19.2×15.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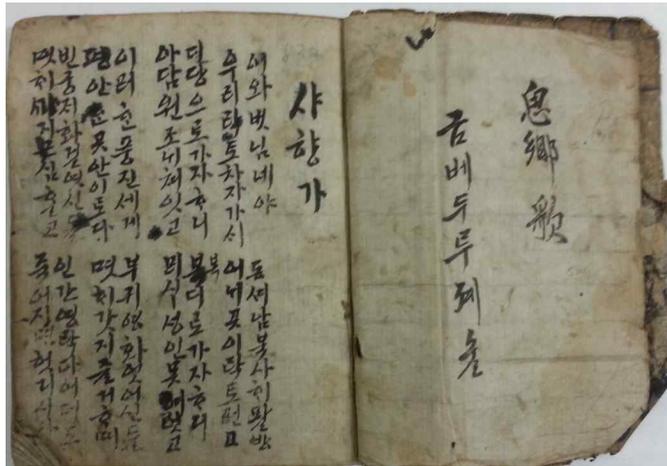
한자서명: 思鄉歌

- 『사향가』는 4·4조 형식의 장편 한글천주가사이다. 천주가사(天主歌辭)란 한글로 기록된 “천당 노래”, “신앙전래 노래”를 말하며, 가톨릭 교리와 신앙적 가르침을 전달할 목적으로 운문 형식으로 부르던 가사이다. 천주가사는 대중포교와 신도들의 교화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작사되었고, 박해시대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가창되었던 노래이다. 우리나라 천주가사의 효시에 대해 1779년(정조 3)에 작사된 이벽(李穡)의 『천주공경가』와 정약전 등의 『십계명가』로 보기도하나 1850-6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가사는 천주교가 전래될 때의 분위기와 교리의 승합과정을 보여준다. 개략적인 내용은 천주의 존재론, 천주강생, 동정생자, 부활과 구속, 천당지옥설, 사심판과 공심판, 사후상벌, 칠극과 칠죄종, 삼사오관(三司五管), 연옥, 신망애 삼덕, 빈민구제, 신마유분(神魔有分), 진복팔단(眞福八端) 등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말로 전개하여, 천주교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이해와 설득을 추구하고, 신자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 『사향가』 역시 신자들에게 내세를 지향하며 박해를 극복하게 하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가사였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집약한 것으로, 서사, 본사, 결사로 구분된다. 이를 한 어구로 표현한다면, “천당을 본향으로 하여 이 현세에서 천주를 신봉하여 천당인 본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 보다는 『주교요지(主教要旨)』를 위주로 하여 가르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향가』의 사상은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과 선택을 통하여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요소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향가』의 창작 시기는 19세기 중엽이지만 구전되다가 1900년대를 전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 가사를 창작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현재 대체적인 설은 김대건 신부에 이어 두 번째로 천주교 사제가 된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신부를 창작자로 보는 것 같다. 그가 지은 것이라면 사제서품을 받고 입국한 1849년 12월 이후 선종한 1861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는 1859년경에 교리서와 기도서 번역작업을 하면서 천주가사를 만들어서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노래로써 신자들을 위한 토착화된 교리교육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신부가 당시 천주교 교리를 당시 백성들이 익숙하였던 시가형식으로 창작하였다는 보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가톨릭교회의 공동창작물 또는 구비전승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사향가』도 다른 천주가사나 구비문학들과 같이 창작자를 명백하게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 또한 천주가사는 비밀리에 구송(口誦)되거나 필사되었기 때문에 이본이 많은 것처럼 『사향가』 또한 표기와 수록내용의 범위가 다른 이본들이 제법 전한다. 현재까지 소개된 것으로는 「경향잡지 인쇄본」, 「김동육본 가첩」, 「금배두루 가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 가첩」, 「남경지 가첩」, 「고로가 가첩」, 「유요왕 가첩」, 「한국교회사연구본 가첩」, 「엄성순 가첩」, 「언양성당본 가첩」, 「장 아뢰수 가첩」, 「서종웅 가첩」 등이 두루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사향가는 1969년에 김동육 교수가 처음으로 소개한 이래로 대략 20여종(호남교회사연구소측에서는 28종 이상이라고 함)의 이본이 공개되어 전한다. 이들 이본들에 대해 조원형은 "천주가사 <사향가>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검토"에서 천주교 반대자들을 반박하거나 유교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대목을 간략한 것과 늘어놓은 것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의 『사향가』는 이 중에서 전자에 속한다.





- 해당 유물 『사향가』는 『사향가』와 『보세만민』 등 두 편의 천주가사가 수록된 19세기의 필사본이다. 세로로 손상된 앞표지에는 『스향가』와 『思鄉歌(사향가)』라는 한글과 한자서명이 있고, 표제지(Title page)와 그 이면에도 『思鄉歌』라는 서명이 세로로 묵서되어 있다. 그런데 표제지에는 서명 외에도 “丁酉臘月 日(정유납월 일)”이라는 묵서가 있다. 여기에서 정유년은 1897년으로 판단되므로 이 책은 1897년 12월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표제지의 이면에는 서명에 이어 “금베두루 저술”이라는 저작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러 『사향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학계에서는 이 책을 “금베드루저술 『사향가』”라고 일컫기도 한다. 여기에서 저술이라는 표현은 이 내용을 창작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향가』는 이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합편된 『보세만민』의 말미에도 “김베두루저술”이라는 묵서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저술이라는 의미는 필사 또는 보완 편집하였다는 의미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1897년 12월에 편집 필사된 천주가사집이다.
 - 이어 본문이 시작되는데 권수제는 『샤향가』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책은 『사향가』 뿐 아니라 『보세만민』이라는 가사도 합편되어 있다. 장수별 편성은 제1-21장은 『사향가』이고, 제22-45장은 『보세만민』이다. 『보세만민』은 망덕, 영세, 견진, 고해, 성체, 종부, 신품, 칠극, 혼배, 제성, 행선 등을 노래한 것이다. 표제지를 포함하면 모두 46장이며, 각 면에는 상하 각각 10구씩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
 - 이 사본은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과 『개화기 국어자료집성(5):성서문헌편』(정길남 편, 박이정, 1995)에 영인되어 소개되었고, 원문은 『천주가사자료집:하』(가톨릭출판부, 2001) 등에 수록되어 있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해당 유물 『사향가』는 금베드로가 1897년 12월에 편집하여 필사한 천주가사집이다. 『사향가』는 현전하는 천주가사 중에서 종합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우리 고유의 가사 양식으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또 박해시대 토착화된 교리서의 역할을 한 가사이므로 교회사, 문화사의 측면에서도 보존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더욱이 이 사본은 1973년 10월 30일에 이 연구소의 소장인 김진소 신부가 지리산 장군봉 남서쪽에 있는 순창군 쌍치면 오룡촌에서 직접 수집한 소중한 사본이다. 그는 수십 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사향가』를 비롯한 천주가사를 열정적으로 수집한 신부이다. 여러 면으로 보아 이 사본은 많은 이본의 『사향가』 중에서 선본으로 생각되며, 1897년의 필사본이므로 원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 그러나 『사향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는 아직 선본에 대해 명백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근자에 김은희는 “사향가(思鄉歌)에 대한 일고찰”(2013)에서 선행연구에 기대어 최초의 저본에 가까운 사본에 대해 “김동육본 가첩”이라고 하였다. 또 이본간의 수록범위와 이자(異字)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

다. 이렇게 초기 선본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본을 포함하여 여러 이본의 계통성과 선본에 대해 학계에서 확정된 다음에 문화재 지정심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헌자료

- 김동욱, “西敎 전래 후의 천주 찬가-사향가 기타에 대하여-”, 『인문과학』 21권, 연세대학교(1969)
- 김문태, “천주가사 <사향가(思鄉歌)>의 교리 실현화 양상”, 『신학전망』 184(2014.3)
- 김영수, “신앙선조들의 영성 - 사향가를 중심으로-”, 강의자료(2015.8)
- 김은희, “<사향가>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34권(2013)
-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검토”, 『텍스트언어학』 제24집(2008.6)
- 강영애, “천주가사 하느님을 노래하다(7) 사향가”, 『가톨릭신문』 (2014.12.2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호남교회사연구소, 『문화재신청자료』

5) 기타

- 이 연구소의 소장인 김진소 신부가 1973년 10월 30일에 지리산 장군봉 남서쪽에 있는 순창군 쌍치면 오룡촌에서 직접 수집.

6) 종합의견

- 선본(善本), 이본(異本) 간의 이자(異字) 문제 등에 대해 관련학계에서 확정된 다음에 지정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전문위원>

1) 현상

- 필사본으로 표지는 한문과 한글로 ‘사향가’로 적혀 있으나, 세월이 흘러 훼손된 상태임. 그러나 속장은 한글 가사의 글씨가 매우 또렷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
- 앞쪽 속표지에 ‘思鄉歌’ ‘丁酉 臘月 日’이라고 하여, 1897년 12월에 필사한 것으로 판단됨.
- 겉 표지 뒤면에는 ‘思鄉歌’ ‘김베두루 저술’이라고 쓰여져 있고, 맨 뒤쪽에는 ‘김베두루 저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를 통해 필사한 사람이 ‘김베두루’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내용은 두 가지의 천주교가사가 수록되어 있음. 1쪽부터 22쪽까지는 「사향가」이고, 그 이후는 「보세만민」이 실려 있음.
- 紙質은 한말 한지로 양질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것임.

2) 내용 및 특징

- 본 가사집에 수록된 「사향가」와 「보세만민」 2종의 천주교 가사는 널리 알려진 것임. 천주교 가사집은 현재까지 65종이 발굴되어 널리 소개되어 있음. 그리고 천주교가사를 대표하는 「사향가」는 이미 異本 28종 학계에 소개되어 있음
- 「사향가」는 천주교 박해시기에 천주교도들에게 교리의 교육하고 그 신앙을 용

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향가」는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천주교를 자유롭게 믿게 되면서 필사되어 널리 불려졌다. 천주교 가사는 일반적으로 서양 종교인 천주교 교리를 한국인들의 심성에 알맞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적절한 비유로 신자들이 암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저술하였다. 따라서 천주교 가사는 박해시기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천주교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사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사향가」의 작자는 현재까지 논란이 있다. ‘최양업 신부’가 교인들에 천주교 교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술하였다는 설이 유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확정적인 증거가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사향가」의 원 작자를 ‘최양업 신부’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금베두루 본 사향가」는 확실한 작성 연대가(1897년 12월) 확인되고, 또 저술자(금베두루)의 이름이 있다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천주교 박해시기의 가사 원형을 가장 잘 갖추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설이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천주교 가사집』은 천주교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가사집은 작성연대(1897년 12월)가 확실하고, 또한 저술자(금베두루)가 명기되어 있어 서지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 『천주교 가사집』에 수록된 「사향가」는 내용적으로도 박해시대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천주교 가사 연구에 일정하게 공헌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천주교 가사집』이 일반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질려면 내용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이나 역사적 사실이 담지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천주교 가사는 교리와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문헌자료

- 김영수 저, 하성래 역, 『천주가사 자료집』 하,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5) 기타

- 「금베두루 사향가」가 수록된 천주교 가사집은 김진소 신부가 1973년 10월 30일 전북 순창군 쌍치 오룡촌(장군봉 남서쪽)에서 수집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 『천주가사 자료집』 하권(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에 수록되어 있다.
- 또한 「사향가」의 작가에 대해 학계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금베두루 본 사향가」 가사집에는 앞면에 ‘금베두루 제술’, 맨 뒷면에 ‘김베두루 저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향가」 연구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존에 학계에서 「사향가」 작자가 ‘최양업 신부’일 것이 유력하였지만, 이 가사집에 ‘금베두루 제술(製述)’, 맨 뒷면에 ‘김베두루 저술(著述)’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술’과 ‘저술’을 단순히 ‘필사자’를

의미하지 아니면 ‘작자’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본 가사집은 천주교사와 한글연구 등의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시 말해, 천주교 가사집이 당시의 시대상이나 역사적 사실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평가자 입장에서는 본 책자의 명칭은 『천주교 가사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천주교 가사집』은 현재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호남교회사연구소에는 김진소 신부가 많은 천주교 가사집을 소장하고 있다.
- 따라서, 「금베두루 사향가」가 수록된 『천주교 가사집』만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천주교 가사집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 『천주교 가사집』의 일괄하여 천주교 가사집 문화재로 등록하면, 보존과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소장되어 있는 천주교 가사를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7) 종합의견

- 『천주교가사집』 필사본은 천주교 가사 가운데 「사향가」의 작성 연대 및 작성자가 명기되어 있고, 또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것으로 박해시기 천주교 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교수>

1) 현황

- 천주교 호남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
- <사향가>의 최초 창작 시기는 19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며 필사는 서기 189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 현상

- 보존 상태가 양호한 천주가사 가첩으로서, 천주가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향가> 전편이 기록되어 있으며 <보세만민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내용 및 특징

- <사향가>는 천주가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서, 천주교 교리를 설득력 있게 설파하는 동시에 천주교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어 그 문학적, 종교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한국 천주교는 1784년에 창립된 이후 100여년에 걸쳐 박해를 받아 왔는데,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공부하고 전파해야 했던 당대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천주가사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가사 문학의 형식을 빌어 천주교 교리를 설파함으로써 신자들이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사향가>가 특히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내용의 신학적 깊이와 논증 방식의 정교함 덕택입니다. 이 작품에는 ‘세속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제1주제)’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천주교 교리(제2주제)’라는 두 가지 주제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을 마치 한 편의 소나타와 같이 ‘두 가지 주제의 병렬적인 제시 - 제시된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화된 논증 - 제1주제의 묘사 대상인 세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제2주제(천주교 교리) 제시’라는 순서로 풀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 전개 구조와 논증 구조는 문학적, 언어학적으로도 분석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매우 큽니다.
 - <사향가> 필사본은 현재 20점 이상의 이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호남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베두루’ 가첩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내용도 다른 필사본들과 견주었을 때 덧붙거나 빠진 부분이 적어 최초 저본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호남교회사연구소는 한국 천주교의 주요 성지 가운데 하나인 천호성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천주교 문화는 이 지역의 근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주가사가 큰 역할을 했으리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번에 조사한 <사향가>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 시대(19세기 천주교 박해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그 상세한 근거는 ‘내용과 특징’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양호하게 보존되어 온 문헌이지만 종이 재질의 특성상 훼손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향후 엄격히 보존 처리를 하되 공식 영인본을 단 1회 제작하여 이후의 연구 활동에는 영인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종합의견

- 이 유물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교수>

1) 현상

I. 명칭 및 기본 서지 사항

- 위 서책은 호남교회사 연구소 창립자인 김진소 신부가 1973년 전남 순창 창치

오룡촌에서 수집한 가첩이다. 현재 전하는 20여 종의 천주가사 가첩 중에서 전편을 살펴볼 정도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사연대와 필사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 『역대가사문학전집』(임기중 편, 아세아문화사, 1998, 작품일련번호 1848)에는 원본이 영인되어 있으며, 『천주가사 자료집』하(김영수 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에는 현대 활자화되어 출간되었다. 학계에서는 “천주가사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조원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처럼 이를 저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석 작업도 살펴볼 수 있다.(『교주 천주가사』(김영수,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 한편 금번 문화재 등록과 관련하여 위 서책은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으로 명명하기를 희망한다.(이하 이 보고서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천주가사자료집』(상)의 “일러두기(x x vi 26쪽)”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존의 성과를 존중하되 필사자, 소장자를 넣어 “천주가사 ~본 가첩(歌帖)”(예: 천주가사 언양성당본 가첩, 천주가사 김문규 가첩)으로 명명하기로 하여, 학계에서는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명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제3조에 부합되며, 특히 제4조 3항의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思鄉歌”라는 제목과 “丁酉臘月”이라는 간지가 표시되어 있다. 표지 내면에는 왼쪽으로 “思鄉歌”, 오른쪽에 “금베두루 제술”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정유년 즉 1897년 금(김)베드로라는 인물이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은 달필이지만 다소 투박한 글씨의 귀글체로 상하 각각 10구씩 기록되어 있으며, 총 분량은 46장이다.
- 수록 작품은 앞에서 22장까지는 <사향가>, 이후부터 가첩의 끝(45장)까지는 <보세만민>이라는 제목 다음으로 <신덕>, <망덕>, <애덕>, <데성> <십계>, <성(세)>, <견진>, <고흥>, <데성테>, <종부>, <신품>, <훈비>, <데성>, <흥>, <선>, <옥중데성> 등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사향가> 다음으로 <보세만민>라는 제목이 나오며, 이후부터는 제목이 기록된 10구체의 형식을 유지하며 윗첨자의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 책의 끝에 다시 “보세만민 종”이라는 기록이 있어 <사향가> 이외의 노래들이 <보세만민가>라는 큰 제목으로 묶여져 있으며, 표지와 같이 작품의 말미에도 “김베두루 저술 본고향을 시·각흥·니·니 노래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 서지사항에서 보이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 하나는, 각각 표지 내면과 마지막 장에 각각 ‘금베두루’와 ‘김베두루’라는 사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 베두루와 베두루는 예수의 12사도 중 하나인 ‘베드로’의 우리말 표기로 파악되어 별 문제는 없어 보인

다. 그런데 금씨와 김씨의 차이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쇠 금, 성 김 자(字)로 읽히는 금(金)자의 경우, 한글을 읽고 쓸 중 아는 필사자로서 이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 두 번째는 ‘금베두루 제술’, 혹은 ‘김베두루 저술’이라는 기록에서 보이는 ‘제술’, 혹은 ‘저술’의 의미이다. 국어 사전에 따르면 제술(製述)은 ‘시나 글을 짓다’의 의미이며, 저술(著述)은 ‘글이나 책등을 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서책에서 나타나 있는 구절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때 수록된 <사향가>나 <보세만민>은 금베두루, 혹은 김베드루라는 인물이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향가>의 작가의 논란으로 보아, 이 구절의 해석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면에 기록된 것과 같이 ‘김 베드로’라는 이가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제술’이나 ‘저술’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곧 주변적 의미 곧 ‘쓰다’를 ‘창작하다’나 ‘짓다’가 아닌 ‘쓰다[寫]’의 의미로 보아 필사자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 내에서 천주가사 <사향가>는 김대건 신부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로 사제가 된 최양업 신부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⁵⁾ 이 구절은 ‘저술’의 본래 의미보다는 재해석의 여지가 분명해진다. 한편 문면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금씨 혹은 김씨 지식인 신자를 찾기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따라서 위의 문면에 나타난 ‘제술’이라는 의미는 간혹 고소설 이본에서 보이듯 그 본래 의미와는 달리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 혹은 금 베드로는 천주가사 <사향가>와 <보세만민>의 창작자라기보다는 필사자로 보는 것이 옳다.

2) 내용 및 특징

I.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 특징과 출현의 배경

-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에는 <사향가>와 <보세만민>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쪽당 상하 10줄씩 기록되어 있는 <사향가>와는 달리 <보세만민>에는 간간이 위쪽 빈칸에 윗첨자 형태의 소제목들이 보인다.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볼 때 <보세만민>이라는 큰 제목 안에 작은 제목이 윗첨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보세만민>이라는 제목이 천주교 교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작은 작품들로 이루어진 연작 형태의 작

5) 일반적으로 천주가사의 작가를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고소설의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아직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서 작가라는 개인의식이 오늘날에 비해 뚜렷이 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차기진은 교회의 공식문헌인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과 『병인 순교자 시복 재판 기록』에 근거해 천주가사 <삼세대의>나 <육중제성가>가 각각 민국가, 이문우 성인의 작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한편 『김약술본』, 『서종용본』, 『박동헌본』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향가>의 작가를 최양업 신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양업 저작설의 근거는 표현이나 반복 등의 방법의 유사성, 위 이본들의 기록, 교회의 전승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방법의 유사성은 구전문학은 ‘구전 공식구(Formula)’의 작시 이론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고, 문헌에 나타난 기록은 연대가 1910년대 이후이며, 가필(加筆)의 흔적이 있다는 점, 교회 전승은 20세기 말 이후 순교자의 기록이 결집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차기진, 조선후기 천주가사 작자고, 부산교회사 22호(1999), 부산교회사연구소; 차기진,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와 저작 배경, 최양업 신부 탄생 180주년 심포지엄 발표논문(2001); 김영수, 천주가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천주가사 자료집』(하) 2001, 598-627쪽 참조

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는 이 가첩에 수록되어 있는 같이 수록되어 있는 <사향가>와 <보세만민>이라는 작품의 저작 연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사향가>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신유박해(1801) 즈음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정⁶⁾을 비롯하여 신유박해에서 기해박해 사이의 기간(1801-1839) 혹은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는 교회내 전승을 인정하여 최양업 신부가 활동하던 시기(1850-1861)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품을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는 교회 내 전승이 있지만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천주가사의 작가를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작가가 최양업 신부라는 한국 천주교의 전승을 인정하더라도 그 저작 시기는 <사향가>는 최양업 신부가 활동했던 시기로 파악된다. 내용이나 사용된 어휘, 표현 기법, 가사의 형식 등에 있어서도 기해박해(1839)때 순교한 이문우, 민극가 성인이 지은 천주가사 <삼세대의>나 <옥중제성가>와 비슷하거나 앞선다고 할 수 있다.
- <사향가>는 문답형식으로 천주교 교리를 바탕으로 유교 윤리와 천주교 윤리의 갈등이 생생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는 필사시기와는 관련 없이 최소한 그 저작 연대는 박해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비해 <보세만민>은 천주교 교리의 직접적인 해설에 속한다. 천주교 주요 교리의 가사체 표현인 것이다. 정리해보면 한국 가톨릭의 흐름으로 볼 때 <사향가>에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되 교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나 박해의 절박함 속에서 이를 해명하려는 노력이 제시되며, 이에 비해 <보세만민>에는 박해시기의 절박함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교리는 매우 체계적이고 정연하게 제시된다고 파악된다. 이는 <사향가>와 <보세만민>의 저작연대는 물론 출현의 시대적 배경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필사본 천주가사 출현의 배경에 대한 탐구는 ‘박해의 절박함’과 ‘교리의 진솔한 전달’이라는 점에서,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내용의 가사가 하나의 가첩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 따라서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에 성격을 달리하는 <사향가>와 <보세만민>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함께 수록되어 있는가를 필사본 천주가사 가첩의 출현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천주가사 필사본 출현과 관련하여 19세기 후반의 상황은 대략 문화사적, 교회사적 배경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⁷⁾
- 박해시기 즉 병인박해(1866)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가 허용(1886)되기까지의 천주가사는 일종의 금지된 노래였다. 박해시기 서책으로 이를 보존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아주 위험한 일로 간주되었다. 지금까지 교회내에서 전승되는 60여 종의 가첩에서 병인박해 이전의 필사된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

6) 하성래, 『천주가사 연구』, 성황석두루가서원, 1985, 197쪽 참조

7) 김영수, “필사본 천주가사집 출현의 배경과 의의”,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 교회』(상), 가톨릭출판사, 2003, 179-204쪽 참조

기서 기인한다. 필사시기가 밝혀진 33종의 가사첩 중 21종이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⁸⁾ 따라서 이 시기에 왜 이렇게 필사본 천주가사 가첩의 출현이 집중되는가에 대한 탐구는 천주가사 가첩이 지니는 문화적 위상은 물론 당대 사회와 어떻게 교감하며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정리하자면 근대로의 이행기로 접어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는 필사본 천주가사 가첩의 출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각각 문학사를 포괄하는 문화사적 배경과 천주가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 가톨릭의 교회사적 측면으로 대별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 먼저 문학사적 배경으로는 이 시기 가사문학의 변모를 지적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래 가사문학이라는 우리의 독특한 문학갈래는 기본적으로 탄력성을 지닌다. 이는 작품의 길이나 수용내용에 있어 4·4조 연속체로서의 형식적 특성으로 작품 내용을 분량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수용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말이다. 이러한 가사가 지니는 탄력성으로 19세기에는 이전의 유교지향에서 확대되어 종교가사, 애정가사, 실용가사, 기행가사, 내방가사 등으로 다양한 영역들을 작품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식적 개방성과 탄력성의 확장으로 가사는 조선 중기까지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특성에서 벗어나 그 향유 계층이 민간으로 깊숙이 파고들게 된다.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나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학이 된다.
- 이를 좀 더 확대하여 문화사적 측면에서 보면 19세기는 17, 8세기의 변화 양상을 지속시키면서 급속 화폐(貨幣)의 유통과 상품 경제의 진전,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잉여의 발생, 그리고 평민 부호의 등장 등의 사회사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 시기이다. 특히 전시대에 비해 농업 생산력의 증가, 도시 상공업의 발달, 청, 일본 등과의 국제 무역의 성행 등으로 권력 핵심부의 양반 계층과 일부 평민 계층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곧 문화적 욕구로 전환되어 문화 수용층과 담당층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경화세족(京華世族)이나⁹⁾ 막대한 양의 서적을 보유한 개인 장서가의 등장, 서적 중개인, 세책업 등 서적 시장의 형성 등으로, 향촌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가 일반에까지 확산되었다. 한편 사회의 양극화에 기인한 부유층의 등장으로 유흥 문화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판소리나 잡가 등 다양한 대중 예술 갈래가 확대되었다.¹⁰⁾

8) 김영수, “천주가사 자료 발굴 현황과 연구 전망”,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 교회』(하), 가톨릭출판사, 2006, 202-204쪽 참조

9)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소명, 1999)에서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조선후기 예술품 시장의 성립이라는 세 편의 논문을 통해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문화계의 변모를 설명하고 있다.

10)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우부가>, <한양가> 등이 있으며, 19세기의 상황을 언급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중철, 19세기 판소리와 변강쇠가, 무속이타령과 19세기 서울의 시정, 19세기말~20세기초 서울의 도시화와 시정세태,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7

정출현,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과 우화소설,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 1999. 347~382쪽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3. 338~346쪽 참조

- 천주가사집 출현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은 문화적인 욕구의 팽창과 더불어 나타난 종이의 발달과 원활한 보급이다. 이로써 서책의 보급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수많은 국문 소설류를 비롯하여 『가곡원류』 등의 시가집은 물론 많은 가사집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되었다. 서책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를 필사본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끝내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목판 인쇄물 즉 방각본 소설¹¹⁾ 등이 출현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 한편 한국 가톨릭의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한국 가톨릭은 최대의 위기와 뒤이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 속에서 필사본 천주가사 가첩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 1866년부터 시작된 병인군난으로 이후 10년동안 교우촌이나 공소를 막론하고 한국천주교회의 조직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교회 지도층은 체포되어 죽거나, 혹은 흩어져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선교사들은 대부분 순교하거나 외국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1876년 중국으로 피신하였다가 재입국하는 조선대목구 제6대 교구장 리델(Ridel, Felix Clair, 1830-1884, 李福明), 블랑(Blane, Jean Marie Gustave, 1844-1890, 白圭三), 드게트(Deguette, Victor Marie, 1848-1889, 崔東鎭) 신부 등이 입국하게 되면서부터 한국 천주교회는 새로운 장을 열고 교회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된다.¹²⁾
- 이들 선교사들은 먼저 교회를 떠난 교우들을 다시 불러 모으거나 새로운 신자의 영입을 위해 활동할 ‘회장(會長, Catechista)’ 제도¹³⁾의 부활시켰다. 교회 창설

임형택, 여항문학과 서민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438~458쪽 참조

- 11) 김동욱편 『영인 고소설 판각본 전집1~5』에는 대략 61종의 소설이 영인, 소개되어 있다. 그 분량으로 보아 당시 방각본 간행의 활발함을 짐작할 수 있다.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판목(版木), 방각장소, 방각본의 출현시기 등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업적과 자료집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동욱, 한글소설 방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향토서술』8호, 1960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11집,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1970
 이능우, 이야기책(고대소설) 판본지략, 논문집4, 숙명여대, 1964
 설성경, 방각본소설의 본문비평, 『고소설의 구주와 의미』, 새문사, 1986
 이창현, 경판방각소설의 상업적 성격과 이본출현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12(서울대인문대학, 1989)
 사재동, 고소설 판본의 형성-유통,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5
 유영대, 완판 방각본 소설의 서지와 유통,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5
- 12) 이들 선교사들은 서울에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명례방 중심의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상징하는 대성당을 포함한 인쇄소, 주교관 등을 신축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본당과 공소를 재건하면서 선교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1886년에 체결된 한불조약을 통해 교회 재건과 교세 확장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888년 주한 프랑스 공사의 입국으로 선교사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와 새로운 선교사의 영입으로 힘을 얻고 직접 선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1882년 대략 1만 2천여명 정도이던 신자수는 매년 증가하여 1900년에는 4만 2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장동하, 개항기 교회의 선교 정책과 전통 사회의 충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99~115쪽 참조.
- 13) 회장제도는 한국 천주교회 고유의 제도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회장제도는 박해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체계화되었다가 병인군난 이후 크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신교(新敎)의 자유가 보장된 후로는 선교의 필요성으로 더욱더 체계화되어 1923년 회장들의 지도서 『회장직분』의 간행을 계기로 한국 교회에 정착되었다. 회장제도의 변천 및 정착화를 역대 한국 교회지도서를 통해 살펴보면, 1857년 『장주교윤시제우서(張主教諭示諸友書)』에서 최초로 회장의 직무가 어린이 세례, 혼인예의 입회, 영회 회 운영 등으로 명기된 이래 1880년대의 『회장규조(會長規條)』에서는 회장의 위치가 밝혀지고, 1887년의 『한국교회지도서(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서울, 1887)에서는 회장의 중재자적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며, 1913년 『회장필지』에서는 회장의 교회사무에 대한 직무가 추가되었고, 이어 1923년 『회장직분』에서는 거의 완전한 체제의 회장제도가 나타난다. 그 뒤 회장제도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에 도입된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목협의회 등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박해를 피해 산간벽지로 숨어든 교우들이 독특한 교회공동체인 공소(公所)를 이루게 되면서 적은 수의 신부들이 많은 공소를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신부들을 대리할 수 있는 평신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 당국에서는 지도급 평신도를 뽑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부를 보좌하게 하고 신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신부를 대신하게 하였다.

- 여기서 회장들은 천주교의 교리를 전수할 수 있는 길은 박해시대부터 구전에 의해 전승되던 천주가사를 활용하였다. 천주가사 자체가 교리교육적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¹⁴⁾ 또한 지극히 한국적인 양식으로 교재 없이도 음영(吟詠)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전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충분히 공식적으로 교리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들은 성당에 서실을 설치하고 천주가사집을 필사하였으며,¹⁵⁾ 보다 정치한 검증을 요하는 것이지만 교리서로서의 천주가사집이 출간되었거나 혹은 출간이 검토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¹⁶⁾
-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필사본 천주가사집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교리를 전수하기 위해 박해시기 일종의 대항 논리가 제시된 천주가사보다는 천주교 교리 자체만을 담은 천주가사의 개별작품도 많이 창작되었다. 그 구체적인 작품이 <보세만민>으로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의 출현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실제로 <삼세대의>나 <옥중제성>, <금침가>, <이별가>와 같이 작가가 분명한 작품이나 <사향가>, <피약수선가>, <충효가> 등과 같이 작가의 계층만을 짐작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보세만민>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나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천당가>, <지옥가> 등의 작품은 위의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며, 단형이라는 점, 그리고 교리를 문면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신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에 교회재건과 선교라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작품에는 천주교의 상황은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으나 그것이 가사형식이라는 것 이외 가사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편 『경향신문』이나 『경향잡지』 등 교회 출판물에 나타난 가사들도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변모양상을 반영하나 동일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에 적용해 보면 이 가첩의 문화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먼저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19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전승되고 있었던 <사향가>와 교리의 직접적인 기술인 <보세만민>이 동시에 수록된 것은 19세기의 문화적 배경과 한국가톨릭의 변화와 관련이 된다. 이전부터 전승되던 <사향가>와 19세기 말 선교의 필요성으로 창작된 <보세만

14) 송병선, 天主歌辭의 교리교육적 고찰: 최양업신부의 思鄉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 수료논문, 1988. 참조

15) 이러한 사실은 앞표지 내면에 ‘全羅南道 務安 木港天主堂 書室 騰’라고 적혀있는 「고로가본」(1901)을 통해서 확인된다.

16) 가톨릭 교회 내에서 교리서 등 서적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주교의 허락이 필요한데 좀더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는 있으나 「오경열본」(1913)의 뒷면의 ‘감목 민아오스당’으로 보면 천주가사를 서적으로 출간하기 위해 검토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이 1897년 ‘금베두루’ 혹은 ‘김베두루’라는 필사자에 의해 하나의 가첩에 함께 수록된 것이다. 필사자는 부족한 사제를 대신하여 신자들을 지도하는 ‘회장’이거나 이와 비등한 평신도 지도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천주가가첩은 선교의 제일선에서 선 회장들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부족한 교리서를 대신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음영되던 <사향가>와 더불어 당시 창작되었던 <보세만민>을 동시에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서양 선교사들이 서구의 신학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본격적인 교리서가 간행, 보급될 때까지 한국 가톨릭 교회 내에서 신자들의 신심생활을 제시하던 교리서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에는 <사향가>와 <보세만민>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쪽당 상하 10 줄씩 기록되어 있는 <사향가>와는 달리 <보세만민>에는 간간이 위쪽 빈칸에 윗첨자 형태의 소제목들이 보인다.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볼 때 <보세만민>이라는 큰 제목 안에 작은 제목이 윗첨자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보세만민>이라는 제목이 천주교 교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작은 작품들로 이루어진 연작 형태의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의 가치와 의의

-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1784년 한국 가톨릭이 창립된 이래 1886년 한불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천주교는 일종의 금기였다. 당시 지배층의 이념과 충돌하면서 천주교는 무군무부의 사학(邪學)으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천주교 관련 서적은 당연히 금서(禁書)로서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다.
-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천주교회는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 박해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중 생활화된 우리 고유의 문학 양식에 천주교의 내용이 포함되어 전승되는 천주가사를 통한 선교 및 신자 재교육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영(吟詠) 등의 방법으로 전승되던 천주가사로 별도의 서책이나 교리서 없이도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병인박해가 종식되는 19세기 말에나 가서야 천주교가 전교를 위한 재정비에 나서면서 선교의 필요성에 따라 구전되던 천주가사는 문헌으로 기록되고, 또 시대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창작되어 전한다. 이후 경향신문 등의 서술형 가사를 거쳐, 경향잡지에 이르러서는 그 형식이 단형화되며, 근대시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서책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현대 문화재로서의 위상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의는 먼저 천주가사와 필사본 천주가사집의 문화적 위상을 점검한 연후에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의 의의와 가치를 기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 천주가사와 필사본 천주가사집 출현의 의의

- 18세기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서구적인 내용을 ‘가사’라는 우리 고유의 문학 형식으로 표출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고려시대 이래 ‘가사’라는 갈래는 우리의 문화사 속에서 매우 긴 시간 동안 향유되었으며, 천주교의 내용이 이 ‘가사’에 스며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천주가사는 가톨릭과 한국 문화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천주가사는 우리의 근현대를 해명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된다. 우리 고유의 형식에 서구의 사상과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내부적 고민과 외래 문화의 관계, 문학에서 시가문학의 변모 양상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통해 멀지 않은 19세기 조상들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냈고, 그것을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문화사적으로 가사문학 지평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열린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가사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의 폭이 그만큼 커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방가사나 생활가사를 제외하고 종교가사만 보더라도 불교문학에서 시작되어 유교적 지향에 머물러 있던 가사문학이 동학가사가 추가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의 내용까지를 수용하고 이후 개신교 가사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가사 문학의 개방성 이면에 자리 잡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허용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 셋째, 오늘날 서구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볼 때 천주가사에는 근대 우리말의 변모 양상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이본 출현지역으로 볼 때 천주가사 이본에는 그 출현한 지역에 따른 다양한 우리 말의 모습을 반영되어 있다. 또한 서구의 용어가 중국을 통해 한자어로 변용되고 다시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영혼(靈魂)’, ‘천당(天堂)’처럼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천주가사 <사향가>의 의의와 가치

- <사향가>는 전하는 천주가사 중에서 가장 이본이 많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만큼 많이 향유되었던 작품이라는 의미로 천주가사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향가의 의의는 여기서 찾아진다.
- 세계 유일의 자생적 탐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앙은 성리학의 한계점을 인식한 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탐구하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 의해 처음에는 서학(西學)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서학이 천주교 신앙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양반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문으로 된 신심

서적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민중의 신앙적 욕구를 채워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主教要旨)>나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門答)> 정도가 천주교 교리 교육 및 전교(傳敎)에 사용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노래를 통한 전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 <사향가>라고 할 수 있다. <사향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천주교 신자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반복되고 있으며 모든 단락은 천주교의 교리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딱딱한 교리서와는 달리 당시의 생활에서 늘 부르던 익숙한 가사 형식에 천주교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심을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천주교를 비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문답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신자들의 신심을 돈독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전교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사향가>에서는 박해자나 적대자 입장에 선 시작 자아를 등장시켜 천주교 교리와 신자들의 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이를 통해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 교리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한편, 신자로서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 천주교 박해는 우리 문화의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한다. 천주가사 <사향가>는 바로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을 통해 유입된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서구의 가톨릭 신앙이 바로 우리 말과 우리 노래로 전한다는 것은 사실 꽤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향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의 의의와 가치

- 오늘날 전하는 천주가사 가첩은 대략 60여종이 넘는다.¹⁷⁾ 그 중에서 <사향가>는 최소 20종 이상으로 확인 된다. <사향가>의 이본은 덧붙임 여부에 따라 A, B, C 등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원본에 가까운 이본군은 A군으로 여기에는 <금베두루본 가첩>을 비롯하여 <김동욱 가첩>, <고로가본 가첩> 등 대략 11종이 있다.¹⁸⁾ 이들 이본의 특징은 그 분량에 있어서 대략 410행 내외로 필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기나 누락을 염두에 둔다면 균일한 편이다.
- 그러나 이 중에서도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은 정확한 필사시기가 1897년으로 제시되어 상대적으로 이들 이본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편으로 간간이 전라도 지역의 방언이 나타난다. 글씨도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보존 상태가 뛰어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교리 전수를 위해 돌려가며 읽던 천주가사 가첩의 특성으로 볼 때 보통의 경우 결표지를 비롯하여 중간중간 낙장이나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이본의 경우 결표지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낙장이 없고, ‘정유납월’이라는 분명한 시기와 ‘금베두루’라는 필사자도 기록되어 있어 천주가사의 풍부한 내용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1784년 한국 가톨릭이 창립된 이래 1886년 한불조약으로 종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천주교는 일종의 금기였다. 당시 지배층의 이념과 충돌하면서 천주교는 무군무부의 사학(邪學)으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천주교 관련 서적은 당연히 금서(禁書)로서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다.
-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천주교회는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다. 박해기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중 생활화된 우리 고유의 문학 양식에 천주교의 내용이 포함되어 전승되는 천주가사를 통한 선교 및 신자 재교육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영(吟詠) 등의 방법으로 전승되던 천주가사로 별도의 서책이나 교리서 없이도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병인박해가 종식되는 19세기 말에나 가서야 천주교가 전교를 위한 재정비에 나서면서 선교의 필요성에 따라 구전되던 천주가사는 문헌으로 기록되고, 또 시대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창작되어 전한다. 이후 경향신문 등의 서술형 가사를 거쳐, 경향잡지에 이르러서는 그 형식이 단형화되며, 근대시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서책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현대 문화재로서의 위상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 논의는 먼저 천주가사와 필사본 천주가사집의 문화적 위상을 점검한 연후에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의 의의와 가치를 기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17) 2006년까지 발굴된 자료가 모두 53종이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발굴된 이본이나 확인된 개인소장자들의 이본을 포함하면 대략 60종이 넘는다.

김영수, “천주가사 자료 발굴 현황과 연구 전망”,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 교회』(하), 가톨릭출판사, 2006, 202-204쪽 참조

18) 조원형, 앞의 논문 15-23쪽 참조

4) 문헌자료

참고문헌

- 하성래, 『천주가사연구』, 성황석두루가서원, 1985
- 이경민, “천주가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아세아문화사, 1998, 작품일련번호 1848
- 김영수 편, 『천주가사 자료집』 (하),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 김영수, 『교주 천주가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 조원형, “천주가사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문태, 천주가사 <사향가>의 교리 실현화 양상, 『신학전망』 184호, 2014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필자가 <천주가사 금베두루본 가첩>을 처음 열람한 지도 십수 년이 지났다. 1999년 어렵게 찾아간 호남교회사 연구소 서실에서 이 가첩을 처음으로 대할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문제는 가첩의 보존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주가사 자료집』 (하) 41쪽의 사진처럼 굳이 자세하게 살펴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표지가 선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열람한 느낌은 표지의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 아마 이 이본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김진소 신부의 자료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찾아오는 연구자들에게 원본을 마음껏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이따금 교회 내 전시회 관계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한편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자료 보관 상태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개인 연구소로 시작한 관계로 자료 보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이를테면 자료실의 온도와 습도 조절장치는 물론 보관 상태도 지하실 책장에 쌓여 보관되는 정도이며, 열람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닐 장갑조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천주교 전주 교구 기관으로 발전,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예산상의 이유로 온전한 보관실이 없다. 이 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하는 큰 이유로 작용한다. 최소한 등록문화재가 되면, 문화재 관리에 따른 해당기관의 조언을 받아 서책 보존에 대한 천주교측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원본을 보존하면서도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원본을 영인하여 파일로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면 이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음

10.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0.2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

(※ 2014년도 '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후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대상으로 선정)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1점	길이 86.4(cm)	19세기 말~20세기 초 추정	목재, 철재	독립기 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목천읍 삼방로 95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0.29.)>

○ ○ ○ ○ 위원

- 한말 의병의 무장 수준을 헤아릴 수 있는 유물임.
- 화승단총 자체가 희귀한 유물인 데다가 의병장의 무장 수준을 확인토록 하고 구체적으로 의병장 이홍승 부자의 활약을 짐작케 해주는 유물로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함.

○ ○ ○ ○ 부관장

- 해당 유물의 화승총은 얼마든지 상태가 좋은 총이 있으나 20세기의 의병장 의병들이 이런 도태된 총도 겨우 구하여 거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즉 화승총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홍승 의병장이 전투에 이 무기로써 목숨 걸고 싸웠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싶다. 따라서 그 시대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소지하였던 무기를 대표할 수 있음.
- 항일투쟁사의 의병의 무기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 무기체계에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개인의 안일 보다는 애국이 우선이었던 우리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귀감이 되는 매개체로 보여지므로 등록가치가 있음.

○ ○ ○ ○ 연구원

- 이 총은 1907년 경기도 남양주군, 가평군,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하다가 순국한 이홍승(李弘承) 의병장(및 이채원 부자)이 사용한 ‘화승단총’으로 전해지고 있음.
- 1900년대 초 한민족의 거족적 의병항쟁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로 판단됨. 따라서 추후 보다 정밀한 고증과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우리민족 의병항쟁사의 생생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근대문화재과 의견>

- 후손에게 기증받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이 유물은 역사적 관점에서 의병항쟁에서 중요한 유물 자료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의병장 이홍승이 사용했던 명확한 고증자료가 없어 등록가치 판단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 고

<항일독립운동분야 등록기준>

<시간적 기준>

- 1895년~1945년에 생산되거나 사용된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물
- 동일한 항일독립운동 분야 유물 중에서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
- 항일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출판물일 경우 가능한 초판본으로 하되 출판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희소한 것
- 당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것

<공간적 기준>

- 항일독립운동 분야에서 대표할만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닌 것
- 항일독립운동 관련하여 지방사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
- 항일독립운동 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것

<내용적 기준>

-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유물 중에서 독립운동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희귀한 것
- 육필 원고의 경우 독립운동가의 필적이 밝혀진 것
- 비중 있는 독립운동가가 직접 사용하였거나 제작한 유품
- 유물 제작과 독립운동가가 착용 및 사용한 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

마. 의결사항

- 보류
 - 면밀한 사료 조사 검토 필요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조사보고서 1부.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2.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손잡이 부분(목재), 총신과 격발장치(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음
- 총신에 2개의 가늠쇠 존재

2) 내용 및 특징

- 조선 후기 때 사용하던 화승총으로 추정되며, 희귀한 유물임.
- 한말 의병의 무장 수준을 헤아릴 수 있는 유물임.
- 의병장 이홍승의 역사적 실체성을 확인 가능한 유물임.

3) 종합의견

- 화승단총 자체가 희귀한 유물인 데다가 의병장의 무장 수준을 확인토록 하고 구체적으로 의병장 이홍승 부자의 활약을 짐작케 해주는 유물로서 문화재로 등록해야 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함.

<○○○ 부관장>

1) 현황

- 화승총으로써 총신이 짧아 단총으로 부름
- 18세기제작, 1907년사용

2) 현상

- 목제개머리판과 총신 부품으로 파손된 방아쇠와 용두가 부착되어있고 ‘ㄱ’자 스프링 등 많은 부품이 남아있다. 총신을 청소하는 철 쭉시개가 없는 상태이고 화약접시도 총신에 부착되어 조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총신앞쪽에는 원형의 테속에 ‘장(壯)’가 은입사 되어있고 가늠자와 가늠쇠가 부착 조준사격을 할 수 있다. 총신은 팔각이 있는 긴 대롱인데 처음 주물로 만들었다가 단조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적인 면은 별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목제개머리판은 조총의 원형이나 철의 정교함도 없다.
- 이런 화승총은 얼마든지 상태가 좋은 총이 있으나 20세기의 의병장 의병들이 이런 도태된 총도 겨우 구하여 거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즉 화승총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홍승 의병장이 전투에 이 무기으로써 목숨 걸고 싸웠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싶다. 따라서 그 시대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소지하였던 무기를 대표할 수 있다.

3) 내용 및 특징

- 1. 화승식 총은 지화식 총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총이다. 불붙은 새끼줄(火繩)이 총열에 외장되어 방아쇠를 당기면 스프링장치에 의해 화약접시에 불을 붙여 총신 안으로 불을 붙여주므로서 흑색화약이 폭발하여 분사하는 힘에 의해 총탄이 날라간다. 불씨를 손으로 약선에 붙이는 기존의 지화식(指火式)처럼 심지가 타 들어가 약실에 불붙여 총알이 발사되는 느린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발전한 총이다. 방아쇠를 연결한 화승물림쇠인 용두를 기계로 조립한 반자동식이어서 방아쇠를 당겨 용수철을 이용한 화승을 물린 용두가 화혈에 있는 화약에 점화함으로써 빠르게 발사하였다. ‘날라가는 새도 맞힐 수 있다’하여 조총이라 붙여졌다. 이것이 발생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15세기이며 일본이 표류한 서양사람(플리트칼)들로부터 개발하여 임진왜란 시 개인 화기로 확대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던 주무기인데, 이총은 후대에 약1.5m의 긴 총신을 짧은 단총으로 개발한 총이다.
- 2. 이총의 총신 위에는 원형 안에 ‘장(壯)’자가 들어 있는 금입사 명문이 있는 것을 보아 처음 장용영(壯勇營)의 무기로 보인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 1793년(정조 17)에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군영(軍營)으로 정조는 새로운 금위체제를 위해 1785년에 장용위(壯勇衛)라는 국왕 호위부대를 창설하였다. 장용위의 총책은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이고, 그 아래에 무과 출신의 정예 금군을 두어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체제로 만들었다가 그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하나의 군영으로 발전시켜서 장용영이라 개칭하였다. 장용영은 크게 내영과 외영으로 나누어졌다. 내영은 도성을 중심으로, 외영은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영은 1월에 수원을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외사(壯勇外使)의 직을 겸하도록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성의 본영을 내영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설치 목적이 왕권 강화에 있었기에 편제도 중앙집권적인 오위체제를 도입,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자 1802년(순조 2)에 혁파되고 말았다. ‘武’ ‘玄’ ‘龍’ 등이 금, 은입사 된 것이 보이며 가끔 이화꽃의 문양도 보이며 별기군 등 신식군대들에게도 사용되었다.
- 3. 조총의 사거리는 짧아서 살상정도를 50m정도로 보이나 영조 때 천보총(사거리 약1200m)으로 개발하게 되고 이것을 권총 또는 단총으로 개발한 것은 정조 때로 보이며 따라서 이 유물은 18·9세기에 관군이 사용된 유물이다.
- 4. 구한말 우리나라 국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병활동이나 독립 운동가들의 무기로 이런 도태된 장비를 겨우 구하여 당시 최신식 뇌관식 총인 일본의 38식 총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보여지니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홍승 부자의 활약상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공과사실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4) 기타

- 육군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서 외형이 완벽한 조총이 많이 소장되어있으나 누가 사용하였는지 모르고 특별히 애국지사의 활동과 개인의 목숨을 버리고 항일 투쟁과 애국 활동한 애국심이 이총에 실려 있음을 인정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며

애국심 양양에 좋은 사료로 인정함. 그래서 제목은 ‘의병장 이홍승 화승단총 義兵將 李弘承 火繩短銃’이라 해야 한다.

- 항일투쟁사의 의병의 무기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 무기체계에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개인의 안일 보다는 애국이 우선이었던 우리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귀감이 되는 매개체로 보여짐. 일본의 38식 소총과 대비하여 전시 군의 규모를 비교하여 줌

5) 종합의견

- 항일투쟁사의 의병의 무기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 무기체계에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개인의 안일 보다는 애국이 우선이었던 우리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귀감이 되는 매개체로 보여지므로 등록가치가 있음

<○○○ 연구원>

1) 현상

- 총신 부분은 녹이 슬고, 방아쇠 부분 손잡이 등 상당부분이 파손됨. 다른 대부분의 화승총과 달리 총신이 짧은 점이 특징임.

2) 내용 및 특징

- 총구 부근의 총신에 “禁”자가 상감(象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금위영(禁衛營, 1682~1895)에서 제작, 사용하던 화승총을 나중에 개조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 총의 제작·사용 연대는 빠르면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제조된 것으로 추정됨.

- 이 총은 실제 의병전투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으로 판단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품은 1907년 경 경기도 남양주, 가평,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다 순국한 이홍승 의병장(또는 그의 아들 이채원)이 실제로 사용하던 ‘화승단총’으로 전승되고 있음. 따라서 유물의 가치와 희소성, 그 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1900년대 초 한민족의 거족적 의병항쟁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로 판단됨. 따라서 추후 보다 정밀한 고증과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우리민족 의병항쟁사의 생생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추후 이홍승, 이채원 부자의 행적에 대한 자료나 참고문헌, 연구성과 등을 연구·조사하여 철저히 고증할 필요가 있음.

4) 문헌자료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1995.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 장세운, 「호서 유림의 홍주의병 봉기와 항후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3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화승단총의 사용자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고증을 거친 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기타

- 이 총은 1907년 경기도 남양주군, 가평군,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하다가 순국한 이홍승(李弘承) 의병장(및 이채원 부자)이 사용한 ‘화승단총’으로 전해지고 있음. 다만 추후 위 두 사람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홍승, 이채원 부자 관련 자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화승단총’의 유사 물품이 거의 없어 희소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7) 종합의견

-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07년 의병항쟁 도중 전사한 이홍승·이채원 부자가 사용한 화승단총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11. 「의병장 곽한일 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의병장 곽한일 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병장 곽한일 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0.2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

(※ 2014년도 '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후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대상으로 선정)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의병장 곽한일 칼	1점	길이 80.5cm	1900년대 추정	목재, 철재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0.29.)>

○ ○ ○ ○ 위원

- 검과 가드, 검날(이상 철), 검집(나무)로 구성되어 있음. 가드 부분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음. 칼날은 약간 휘어져 있음.
- 검 자체의 기술적 측면이 높은 것이 아니며 또 검에 대한 정확한 역사 정보가 확인되기 힘든 상태에서 문화재 등록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함.

○ ○ ○ ○ 부관장

- 항일투쟁사의 의병의 무기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 무기체계에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개인의 안일 보다는 애국이 우선이었던 우리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귀감이 되는 매개체로 보여지므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가 있음.

○ ○ ○ ○ 연구원

- 한국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주 성전투에서 돌격장·소모장(召募長)으로 활약한 곽한일 의병장이 사용한 검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근대문화재과 의견>

- 후손에게 기증받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이 유물은 역사적 관점에서 의병항쟁에서 중요한 유물 자료로 상징성은 있으나, 의병장 곽한일의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고증자료가 없어 등록가치 판단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항일독립운동분야 등록기준>

<시간적 기준>

- 1895년~1945년에 생산되거나 사용된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물
- 동일한 항일독립운동 분야 유물 중에서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
- 항일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출판물일 경우 가능한 초판본으로 하되 출판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희소한 것
- 당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것

<공간적 기준>

- 항일독립운동 분야에서 대표할만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닌 것
- 항일독립운동 관련하여 지방사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
- 항일독립운동 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것

<내용적 기준>

-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유물 중에서 독립운동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희귀한 것
- 육필 원고의 경우 독립운동가의 필적이 밝혀진 것
- 비중 있는 독립운동가가 직접 사용하였거나 제작한 유품
- 유물 제작과 독립운동가가 착용 및 사용한 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

마. 의결사항

- 보류
 - 면밀한 사료 조사 검토 필요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의병장 곽한일 칼」 조사보고서 1부.

「의병장 곽한일 칼」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의병장 곽한일 칼
2.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조사자 의견

<○○○ 위원>

1) 현상

- 검과 가드, 검날(이상 철), 검집(나무)로 구성되어 있음. 가드 부분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음. 칼날은 약간 휘어져 있음.

2) 내용 및 특징

- 국내 제작용 검이 아니라 일본산 검으로 추정됨.

3) 기타

- 유사한 성격의 검이 다수 존재함.
- 홍주성 탈환시 돌격대장으로 활약했던 곽한일의 검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찾기 힘들.

4) 종합의견

- 검 자체의 기술적 측면이 높은 것이 아니며 또 검에 대한 정확한 역사 정보가 확인되기 힘든 상태에서 문화재 등록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함.

<○○○ 부관장>

1) 현상

- 목제에 흑칠한 칼집과 병부에 단조된 조선검으로 장도(長刀)이다. 이 칼은 관제로써 호인에 투각한 하트모양이 다른 칼 운검(육군박물관 소장 운검)에도 보이고 규격도 당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갈 정도로 규격품이다.
- 도초의 금속장식이 떨어져나갔는데 대부분 장식금속은 병부 끝의 장식과 같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다. 초엽문 투각으로 앞뒤 마감 매김을 하였다. 이 문양도 조선도에 잘 이용되는 문양이다.
- 칼의 코등이에 매화, 국화, 대나무 난의 사군자의 문양이 음각 되어있다.
- 칼의 단면은 육각도로서 조선도의 특징인 직단(直短)이나 일면평조一面平調刀는 아니나 후기에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칼이 길어지고 곡율이 있으며 단조를 하여 칼끝은 사두형의 모습이 있다.
- 조선도의 또 하나 특징인 패용을 위해 띠돈이 달리는데 패용장식은 있으나 띠돈이 탈락된 상태이다. 띠돈은 칼을 왼 옆구리에 찰 때 옷의 겨드랑이 쪽에 고리를 걸 수 있는 줄을 빼고 띠돈으로 걸어 의장 시에는 손잡이를 뒤로 가고 칼날이 앞으로 오도록 패용했다가 유사시 360도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띠돈의 역할이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 병부에는 목정혈이 하나있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명주 매듭으로 홍조수아를 달아 의장 뿐 아니라 실제 전투 시 손목에 줄을 감아 칼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일본도의 경우 나비매듭으로 손의 파지에 밀리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칼은 실제 대련을 위한 칼이라기보다 지휘도로서 군왕이 주었던 권이 정통성을 민중에게 어필하기위한 것임으로 칼은 마지막 호신의 장구로 전투 시 보조무기였다.

2) 내용 및 특징

- 형 식 : 조선도검의 형식으로 지휘도
- 조성연대 : 19세기제작, 1907년사용
- 1. 조선칼은 백병전에 유용한 전투도인 일본도와 달라서 의장이나 지휘도의 용도로 또는 출정하는 장수에게 왕이 하사하는 경우, 선비 군자들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칼을 닦고 심신을 닦는 매개체였으므로 칼에 나타나는 문양이 많이 시문되는데 이 칼의 코등이에 매화, 국화, 대나무 난의 사군자의 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 2. 이 칼은 고종황제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의병운동이 일어나자 극비로 독립군 의군부 총무총장에게 전교하여 의대소와 칙서와 함께 하사한 칼이라 전한다. 우리나라에 임금이 출정하는 장수에게 신의와 충성의 정표로 처음에는 부월을 하사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칼을 하사하기도 하고 또 활을 주기도 하여 무기는 지휘권 부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왕의 기물을 적재하는 곳이 상방(尙房)이라 하여 일종의 상방검이다. 상방검은 관제로서 가장 바른 좋은 작품의 칼이다. 상방검의 대표적 검은 육군박물관소장의 이억기하사보검인데 16세기에 제작된 상방법인 이억기(李億祺) 검과 비교하면 검과 도의 차이만 있고 외형의 목제 도초(刀鞘)는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 따라서 황제가 하사한 상방검이라는 데에 의심치 않는다.
- 3. 조선시대의 도검의 명칭은 현대개념과 다르다. 무예통지이후 현대에는 양날을 검 한날의 칼을 도라고 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도와 검을 혼용하였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칼을 검이라 하였고 대표적 칼의 이름이나 무기로서 만의 보통 칼을 환도(環刀)라고 하였고 다른 이름으로 찬다하여 패도(佩刀)라고 하였으며 또한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검이나 도는 다 검으로 부르고 언월청룡도같이 손잡이가 창처럼 긴 칼을 도라 불려 협도 등의 이름으로 ‘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4. 을시의병 민중식과 함께 홍주성탈환과 전주지역에서 혁혁한 활동을 전개하다 순절한 의병장 곽한일이 고종황제로부터 밀사받은 지휘도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싶다. 그분의 대한독립 의군부 총무총장, 돌격대장으로서의 활약한 점 등을 보아 당시에 급박하게 돌아갔던 대한제국의 운명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고종을 상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시대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소지하였던 무기를 대표할 수 있다.

3) 기타

- 육군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서 외형이 완벽한 조선도검이 많이 소장되어 있으

나 누가 사용하였는지 모르고 특별히 애국지사의 활동과 개인의 목숨을 버리고 항일투쟁과 애국 활동한 애국심이 이 칼에 실려 있음을 인정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며 애국심 양양에 좋은 사료로 인정함. 이억기의 하사보검, 사군자도, 문관도, 충의검 등과 비교하여보면 조선의 관제 또는 상방검 이 확실하다. 그래서 제목은 ‘의병장 곽한일 지휘도義兵將 郭漢一 指揮刀’ 라 해야 한다.

- 항일투쟁사의 의병의 무기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 무기체계에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개인의 안일 보다는 애국이 우선이었던 우리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귀감이 되는 매개체로 보여짐.

4) 종합의견

- 항일투쟁사의 의병의 무기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 무기체계에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개인의 안일 보다는 애국이 우선이었던 우리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귀감이 되는 매개체로 보여지므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가 있음.

<○○○ 연구원>

1) 현상

- 칼집과 칼 손잡이 표피 부분은 상당히 손상·탈색되었지만, 칼날과 손잡이 상부 손등 보호 부분 등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함. 특히 손등 보호 부분의 금속에는 매화 문양이 음각되어 있고, 손잡이와 칼날(刀身)을 잇는 부분에 고급스런 낫쇠(?) 보호장구와 음각 하트모양이 파여 있어 관영(官營) 제조소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정부 고위 관료나 양반 사대부층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칼집도 당초에는 옷칠이 되어 있었지만, 오랜 시일이 흘러 손상, 탈색된 것으로 보임.

2) 내용 및 특징

- 격검흔(擊劍痕)이 별로 없어, 실제 전투에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의병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검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품은 저명한 의병 지도자인 곽한일 의병장이 실제로 1906년 충청남도 홍주성(현재 홍성) 의병전투 당시 사용한 도검으로 전승,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유물의 가치와 희소성, 그 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1900년대 초 한민족의 거족적 의병항쟁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로 판단됨. 추후 보다 정밀한 고증과 검증,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우리민족 의병항쟁사의 생생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문헌자료

-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1995.
-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 장세윤, 「호서 유림의 홍주의병 봉기와 향후 민족운동」, 『대동문화연구』 3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장세윤, 『봉오동 청산리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 역사공간, 2007.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곽한일)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
- 후손 곽명신이 1984년 6월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귀중한 유물임. 후손들은 곽한일 의병장이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신빙성이 큼.
 - 곽한일은 국가보훈처에서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을 추서할만큼 확실한 의병항쟁 공로가 인정되고 있음.
 - 제작 및 소장 경위가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유사 물품이 거의 없어 희소가치도 있다고 판단됨.
- 7) 종합의견
- 한국 의병항쟁사, 독립운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주 성전투에서 돌격장·소모장(召募長)으로 활약한 곽한일 의병장이 사용한 검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12. 등록문화재 제52호 「구 서울특별시 청사」 등록범위 조정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등록문화재 제52호 「구 서울특별시 청사」에 대한 등록 범위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서울특별시 청사」의 문화재 등록 범위 조정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 : 구 서울특별시 청사 (등록문화재 제52호, '03.6.30 등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 등록 관리내역 : 1동, 4층, 연면적 8,506.38㎡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범위 축소 조정

- 당초 등록 : 1동, 4층, 연면적 8,506.38㎡(구 서울청사 당초 본관동 면적임)
- 변경 등록 : 현재 잔존한 전면과 측면 파사드, 중앙탑과 돛지붕(형태), 현관 및 중앙홀, 중앙계단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하여 관리

(4) 신청인 의견 (조정 신청사유)

- '08~'13년에 걸친 신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 결과 전면 및 측면 파사드, 중앙탑과 돛지붕 등의 일부만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나 현재 등록 관리되는 범위는 당초 구 서울 청사 본관동 전체 면적이 등록 관리되고 있음
- 현존하는 원형 시설 기준으로 등록관리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구 서울특별시청사 관련 참고 연혁 >

- '03.06.30 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록
- '07.07.10 서울시청 본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 '08.08.26 태평홀 일부 해체에 따라 문화재청 사적 가지정 통지
- '09.02 보존부위 제외한 본관의 부분 해체
- '09.09.11 사적 가지정 해제 → 등록문화재로 관리 전환
- '12.08.31 신청사 신축공사 완료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15.1.20) / 문화재위원 ○○○>

- 등록문화재 제52호인 서울시청 청사는 등록 후 신관증축과 수리를 통해 일부 멸실, 일부 원형유지, 일부 이전복원 되었으므로 등록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서울시 청사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이 필요함.
 - 명칭 : 구 서울시 청사
 - 등록범위 조정 : 원형이 유지된 부분(전면 및 측면 파사드, 중앙 탑과 돛지붕, 현관 및 중앙홀, 중앙계단)과 이전 복원된 부분(시장집무실, 및 접견실, 기획상황실, 태평홀)의 지표기준 수직방향 상하 전범위로 등록범위 조정

마.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 출석 6명, 보류 6명

보 고 사 항

13. 지하시설 등록문화재 위 지상 건축물 신축 등 현상변경 사례 보고

가. 보고사항

- 지하시설 등록문화재 위 지상 건축물 신축 등 현상변경 사례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록문화재 제314호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등록 구역 내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

다. 현상변경 사례

(1) 행 위 자 : ○ ○ ○

(2) 대상문화재 :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등록문화재 제314호, '06.12.04등록)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17번지 (등록면적1,190.66㎡)

* 지하 저장 창고시설 (콘크리트구조, Y자형식) : 131.52㎡

(3) 행위내용

- 대상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417번지(등록구역 내)

- 시설내용 : 단독주택 신축 및 주차장 포장

- 구조 : 단독주택-블럭조, 슬라브 지붕 / 부설주차장 - 인터록킹 포장

- 규모(113.73㎡) : 단독주택 - 지상 1층, 건축면적 102.23㎡, 높이 4.95m

부설주차장 - 11.5㎡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1.19) / 문화재위원 ○ ○ ○>

- 등록문화재 제314호인 모슬봉 일제군사시설의 콘크리트 시설물과 2.5미터 떨어 뜨려 1층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지하의 구조물 경계를 넘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등록 당시(2006년 12월) 이 유구에 대하여 해당 구조물 외에 지형, 지세를 활용한 은폐 군사시설물인 것에 가치를 두고 주변의 지형까지를 보존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는지 또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구조물 외의 매장유구 존

재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신축을 위한 터파기와 토목공사는 관련유구의 매장가능성에 유념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유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등록되어 있는 지하유구와 지상의 신축건물을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근대문화재과>

- 해당 행위는 시설물 외관의 1/4(기준:297.5㎡)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나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나 건축행위 시 지하유구 노출 유무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함(건축 등 면적:102.23㎡/등록면적 1,190.66㎡)
※ 근거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동법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마. 의결사항

- 접수
- 출석 6명, 접수 6명

14.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추진

가. 보고사항

-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안전기준과에서 등록문화재 45건을 대상으로 수립한 2016년도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안전기준과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년1월 ~ 사업종료 시 까지

○ 사업대상 :

- 등록문화재 : 45건, 2,052백만원(국비 : 1,026백만원, 지방비 : 1,026백만원)

(3)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작성, 사업시행, 사업감독 등

라. 검토의견

〈안전기준과〉

- 등록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2013년 시행)을 통하여 화재에 취약한 구 강경노동조합 등 161개소에 연차적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접수
- 출석 6명, 접수 6명

붙임 :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국고보조사업 (등록문화재 분야) 세부현황 1부

[붙임]

2016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국고보조사업 [등록문화재 분야]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분류 및 내용		2016년도 확정액		
시도	시군구	종목	지정번호		분류	내용	계	국비	지방비
서울		등록	제85호	서울 계동 배림 가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서울	종로구	등록	제89호	서울 평창동 박종화가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서울	종로구	등록	제90호	서울 홍파동 홍난파가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대구	중구	등록	제252호	대구화교협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30,000	15,000	15,000
광주	광산구	등록	제146호	광주 장덕동 근대 한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0,000	5,000	5,000
울산	울주군	등록	제103호	울산 언양성당 본관과 사제관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4,000	32,000	32,000
울산	울주군	등록	제102호	울산 구 상북 면사무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강원	원주시	등록	제139호	원주 원동성당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4,470	32,235	32,235
강원	횡성군	등록	제371호	횡성성당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40,000	20,000	20,000
강원	원주시	등록	제140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5,000	7,500	7,500
충북	옥천군	등록	제7호	옥천성당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전설계)	10,000	5,000	5,000
충북	제천시	등록	제56호	대한통운 제천 영업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충북	진천군	등록	제58호	진천 덕산양조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30,000	15,000	15,000
충북	진천군	등록	제8호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20,000	10,000	10,000
충남	공주시	등록	제443호	구 공주읍사무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20,000	10,000	10,000
충남	공주시	등록	제233호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전기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20,000	10,000	10,000
충남	부여군	등록	제364호	부여 구 홍산저포조합 본점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30,000	15,000	15,000
전북	고창군	등록	제325호	고창 조양식당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전북	김제시	등록	제220호	김제 종신리 절충식 가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0,000	5,000	5,000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분류 및 내용		2016년도 확정액		
시도	시군구	종목	지정번호		분류	내용	계	국비	지방비
전북	김제시	등록	제187호	김제 신풍동 일본식 가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33,000	16,500	16,500
전북	김제시	등록	제61호	김제 죽산면 농구 일본인 농장 사무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0,000	5,000	5,000
전북	김제시	등록	제403호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47,976	23,988	23,988
전북	김제시	등록	제219호	김제 신풍동 근대 한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55,620	27,810	27,810
전북	김제시	등록	제185호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83,364	41,682	41,682
전북	부안군	등록	제177호	구 부안금융조합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50,000	25,000	25,000
전북	익산시	등록	제179호	원불교 익산성지	방법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방법)	120,000	60,000	60,000
전북	전주시	등록	제172호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전기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80,000	40,000	40,000
전남	곡성군	등록	제122호	구 곡성역사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0,000	5,000	5,000
전남	구례군	등록	제121호	구례 구 방광 국민학교 교사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전남	구례군	등록	제120호	구례읍사무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50,000	25,000	25,000
전남	신안군	등록	제361호	신안 증도 석조 소금창고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전설계)	10,000	5,000	5,000
전남	영광군	등록	제119호	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72,100	36,050	36,050
경북	경주시	등록	제290호	경주 구 서경사	방법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방법)	30,000	15,000	15,000
경북	문경시	등록	제326호	문경 구 불정역사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6,000	8,000	8,000
경북	포항시	등록	제373호	포항 오덕리 근대 한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전설계)	10,000	5,000	5,000
경북	상주시	등록	제278호	상주 구 내서면사무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경북	상주시	등록	제284호	상주농협 구 창고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 분류 및 내용		2016년도 확정액		
시도	시군구	종목	지정번호		분류	내용	계	국비	지방비
경북	청송군	등록	제497호	청송 소류정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경남	산청군	등록	제148호	산청 특리 근대 한옥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12,000	6,000	6,000
경남	통영시	등록	제36호	구 통영청년단 회관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제주	서귀포	등록	제409호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제주	서귀포	등록	제157호	남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제주	서귀포	등록	제410호	제주 구 해병 훈련시설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제주	서귀포	등록	제38호	남제주 강병대 교회	소방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60,000	30,000	30,000
제주		등록	제308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전기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100,000	50,000	50,000